

MONT  
BLANC



##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and Hugh Jackman

### Crafted for New Heights

Featuring one of the most delicate complications in fine watchmaking, the Mont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will require no adjustments until the year 2100, so long as its automatic Caliber MB 29.15 is kept sufficiently wound. Housed in a 39 mm 18K red gold case, this refined timepiece truly promises to be a lifetime companion. Visit [Montblanc.com](http://Montblanc.com)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 Style

조선일보

JULY 2014 vol.111

*True love has a colour and a name*



[cartier.co.kr](http://cartier.co.kr)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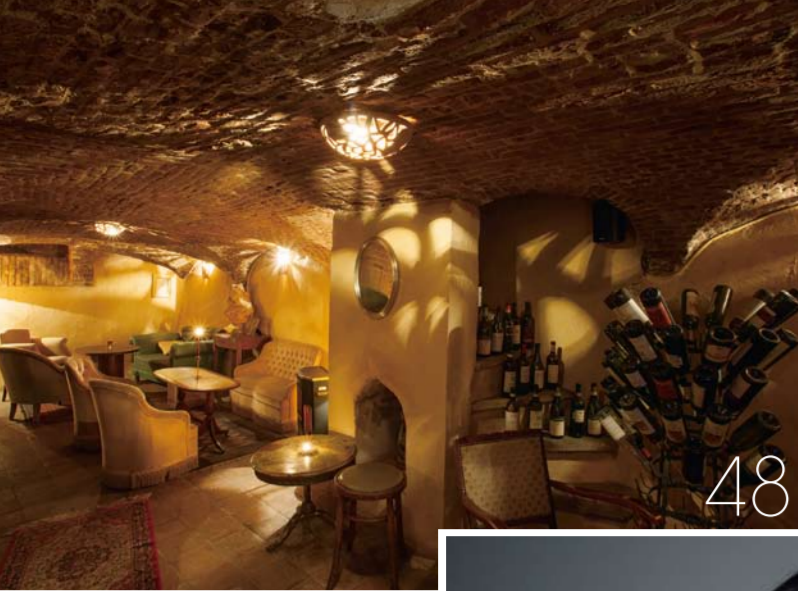
OMEGA



Ω  
OMEGA  
*De Ville Butterfly*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www.omegawatches.com



48 12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까르띠에의 솔리테어 1895년과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다. 우아한 레드 박스를 여는 순간, 여자의 로망은 현실이 되고, 완벽하고 로맨틱한 프러포즈가 완성된다. 1895년 루이 까르띠에가 디자인한 4개의 돌을 팔레트와 와이어 보드로 이루어진 마운트의 완벽한 균형미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1566-7277



28

- 12 **GIULIO CAPPELLINI** 창조적인 파트너십을 일궈내 세계적인 대가가 된 다국적 디자이너들의 대부와 같은 대접을 받는 카펠리니. 밀라노에서 직접 만난 그의 세상은 여전히 참동근 듯했다.
- 14 **EXPLORE THE DEEPEST** 정확성과 가독성이 뛰어난 다이버 워치 컬렉션.
- 16 **ENJOY, WEEKEND**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주말 여행을 위한 남자들의 워드엔드백.
- 18 **SILVER AGE** 투박한 듯하면서 섬세하고, 가벼운 듯하면서도 럭셔리한, 주얼리 트렌드를 사로잡은 실버 주얼리.
- 20 **GET NEW CLASSICS** 일상에 단 하나의 가방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 클래식 백일 것이다.
- 22 **T-SHOCK**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터치, 이티스틱한 프린트, 대담한 컬러 조합과 다채로운 문양이 빛낸 티셔츠 한 장의 힘.
- 24 **ACTIVE STEPS** 알량한 고우 밀창과 두꺼운 스트랩, 투박한 형태로 활동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스포츠 샌들.
- 26 **EDITOR'S PICK** 뜨거운 여름과 걸맞게 업데이트된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뷰티 아이템 리스트.
- 28 **NOW IS GOOD** 여배우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삶의 기쁨을 정밀한 이영애.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향기로운 순간.
- 36 **L'ODYSSÉE DE JEWEL** 하이 주얼리와 단아한 기품을 갖춘 이영애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상상의 여정.
- 37 **TIME WRITER** 지난 5월 개최한 몽블랑의 (She Comes to You)에서 만난 아름다운 몽블랑의 히스토리.
- 38 **AN EVENING OF SURPRISES** 스위스 워치 브랜드 오메가와 브랜드 앰배서더 조지 클루니가 상하이에서 조우했다.
- 40 **SPECIAL ONE**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하이 퀄리티의 보석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칸넨퍼라리 오토 쿠무리 주얼리 루스에.
- 42 **LIFT UP YOUR FACE** 4세대 '토탈 V' 에센스는 부와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해 기름한 얼굴선에 한 발짝 다가게 한다.
- 43 **ENERGY BOOSTING** 피부를 정화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스킨케어의 첫 단계, 디올 윈 에센셜이 그 해답이 되어줄 것.
- 44 **THE DYNAMIC ELEGANCE** 스위스 시계 명가 론진이 후원하는 승마 경주인 '프리드 디안 론진(Prix de Diane Longines)'.
- 45 **THE BEAUTY OF MODERN KOREA** 한국이 자랑하는 신비로운 청자, 청이한 백자의 매력적인 색채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물씬 풍기는 특유의 다이아몬드 앵글 커팅이 조화를 이루는 한정판 스카치위스키에 주목해보자.
- 46 **LUXE CASE** 럭셔리 트렁크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디테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럭셔리한 완벽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47 **CANCER CHARITY**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 랄프 로렌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암 센터 로열 마스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 48 **SWEET TIME IN GENT** 겐트는 벨기에 중앙에 위치한 교육과 전통의 도시다. 유럽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덕분에 산업과 예술이 발달해 예술가와 학자, 사업가가 머물다 가는 곳이다 보니 도시 곳곳은 매력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36



# Style 조선일보

Issue.111 July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i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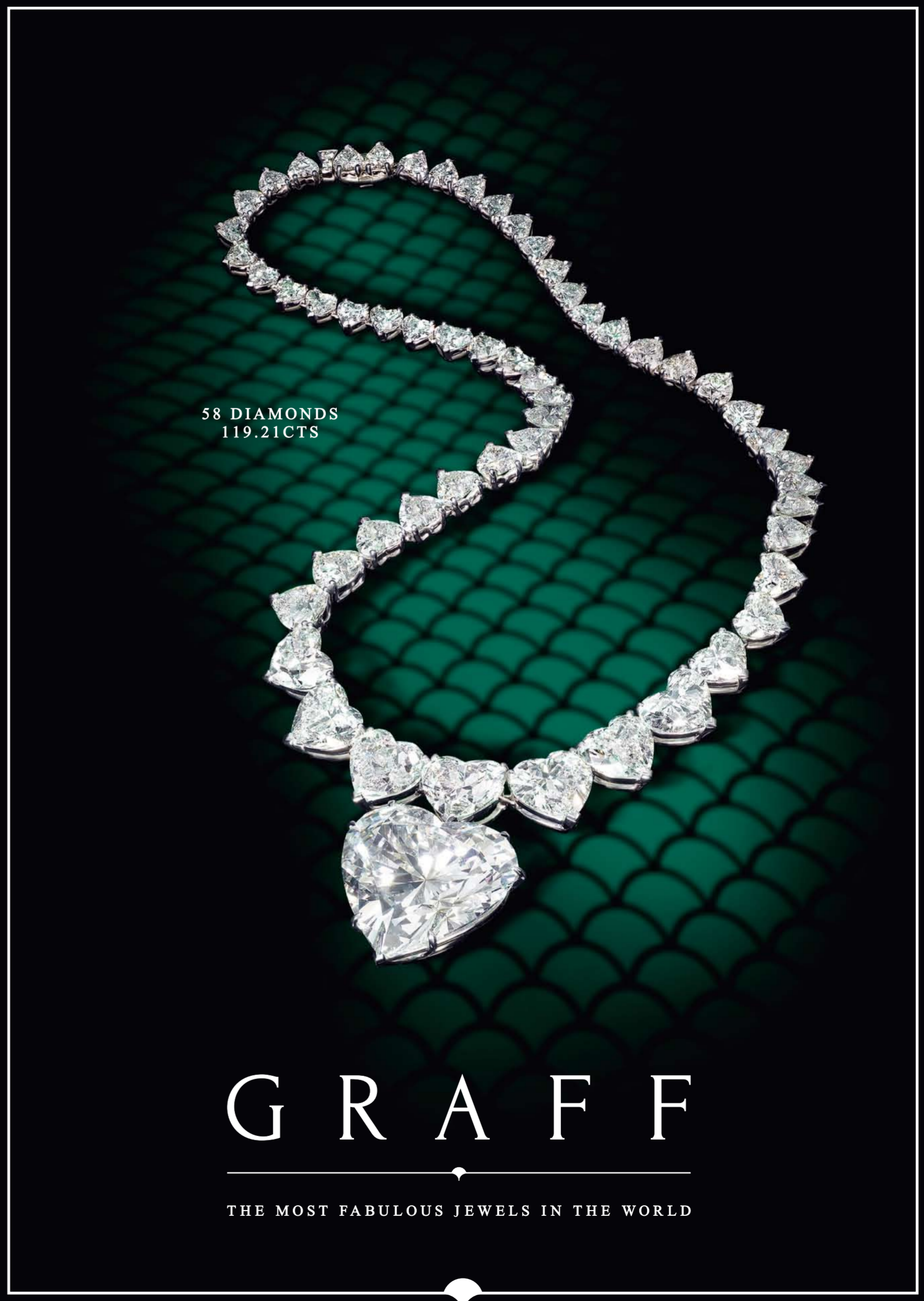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스페셜 에디션이나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58 DIAMONDS  
119.21CTS

# G R A F 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Jewel BEAUTIFUL IN PEARL**

여자만을 위한 궁극의 주얼리, 진주 그리고 머더오브펄.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화이트와 블랙 머더오브펄 오가드를 표현한 까르네 드 오가드 펄로 까르네에 브레이슬릿 1천원대 까르네에, 연꽃 고리를 뿔린스 장으로 디자인한 펄리 필 네크리스 1백40만원대 타사키, 머더오브펄로 순수한 느낌을 강조한 에메랄드 까르네에 펜던트 5백10만원대 까르네에, 아코아 진주 시어 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코아 칼렉션 네크리스 5천원대인 에 타피니, 코인 칼렉션을 재해석해 머더오브펄을 매치한 모페 칼렉션 브레이슬릿 1천원대 볼가리, 에디터 베이진

**Fashion HOT SHOPPING**

비디오, 산으로 떠나고 싶은 이 계절. 도심이 즐거운 건 늘 목랄라 있는 우리의 스포유크를 채워줄 새로운 패션 브랜드 덕분에 아닐까. 주머니가 가벼워짐과 안정 기가 구입하고 싶은 개성 강한 뉴 페이스가 등장했다. 먼저 SPA 격전지로 불리는 서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추가됐다. 캐나다 대표 SPA 브랜드 '조 프레시(JOE FRESH)'가 론칭 쇼 이후 아시아 최초로 명동에 첫 매장을 오픈한 것. 디자이너가 만드는 브랜드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앞세워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소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특히 오렌지, 블루 등 화사한 컬러가 강세를 보인다. 맛잇한 트렁크 디자인이 자겨워진 이들에게는 라움에서 전가하는 '닷 드롭스(Dot-Drops)'를 추천한다. 프랑스 태생의 캐리야와 트래블 백 전문 브랜드로, 가방 전문을 장성한 도트 무늬가 고유의 DNA를 대변한다. 컬러 스티커를 이용해 이니셜, 동물, 국기 등 다양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방식으로 유명하다. 2006년 이탈리아에서 론칭한 메카니케 벨로치(Meccaniche Veloch)는 레이싱과 스피드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워치 브랜드. 레이싱 카의 엔진 피스톤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 케이스와 고성능 무브먼트, 타이팅, 카본 등을 사용해 강한 인상을 남긴다. 모터 스포츠를 사랑하는, 질주 본능을 장착한 남자라면 쉽게 지나칠 수 없을 듯. 압구정동 갤러리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파운데이션, 립글로스, 하이리미터 등 화장품에서 영감을 얻은 캐나다 브랜드 '타키스(Tkees)'도 LA식 패션을 추구하는 여자들이 환영할 만한 브랜드다. 할리우드 스타라면 이 브랜드의 플리플롭을 신은 파파라치 컷이 한 장쯤은 있을 정도라 '셀러브리티'의 플립플롭으로 불린다. 발바닥이 닿는 면은 스가죽으로, 유연한 아웃솔은 고무로 제작해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고 하니 센트럴 포스트에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라. 에디터 **이예진**



타키스

조프레시

메카니케 벨로치

닷드롭스



**Beauty SUMMER CLEANSER**

피부가 번들거리고 끈적이는 여름날, 뽀뽀하고 촉촉하게 세안하고 난 뒤의 그 기분은 상상만 해도 상쾌하다. 더욱 가볍고 싼뜻해진 사용감과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깔끔히 제거하는 세정력으로 투명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줄 서머 클렌저를 소개한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세이도 퍼펙트 클렌징 오일'은 쉐일 리프팅 기술을 적용해 버리는 즉시 모공에 빠르게 침투해 불순물과 메이크업을 부드럽고 꼼꼼하게 제거한다. 워터프루프 메이크업도 말끔하게 지워내니 이 제품 하나면 클렌징은 끝! (180ml 4만5천원). '클라리니스 클렌징 에센셜 워터'는 촉촉하고 싼뜻한 워터 타입 클렌저로, 물 없이 피부에 듬뿍 묻혀 두어내면 피부 노폐물과 독소가 제거된다. 물 세안을 할 필요가 없어 운동 전후, 여행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200ml 3만9천원). '비오렐 비오수르스 클렌징 오일'은 끈적임 없이 싼뜻한 페이스 & 아이 전용 오일 클렌저다. 식물성 오일과 이물리엔트 성분을 함유해 자극 없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클렌징한다. 또 라인 추출물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 (200ml 4만4천원대). '나스 쉐일 크림 클렌저'는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며 자극 없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크림 타입 제품. 케미칼 성분은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주고 세안 후 피부가 팽기지 않아 피부가 건조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125ml 4만7천원). '리아이처 리아일 클렌저'는 '이경에 클렌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쏘독하고 피부 밀착력이 뛰어난 제형이 특징이며 짧은 미사지라도 충분히 딥 클렌징이 가능한 데일리 클렌저다. 순한 100% 식물성 제품으로 모공 속 노폐물과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30g 3만9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sign 디자인과 콘텐츠를 융합한 세계적인 브랜드 모노클, 국내 최초 팝업 스토어 오픈**

국내에서도 미니이즘을 거느리고 있는 융합 디자인 브랜드 모노클(Monocle)을 오프라인 형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세계적인 디자인 잡지 <월페이퍼>의 공동 창업자 타일러 브릴리가 2007년 창간한 <모노클>은 비즈니스, 문화, 디자인을 아우르는 참신한 콘텐츠 구성과 밀도 있는 내용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데다 에르메스, 공데가르송 같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디자인 상품군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해왔다. 문구류, 여행 가방, 우산, 인테리어 소품 등 'M' 자를 멋지게 풀어낸 모노클 로고가 들어간 각종 디자인 상품은 지구촌 트렌드세터들에게 애용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서울 갤러리백화점 명품관 웨스트 5층에 자리 잡은 모노클 팝업 스토어는 국내 첫 오프라인 매장이다.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런던, 도쿄, 홍콩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모노클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이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요시 다카기(가)가 디자인을 맡았다. 스코틀랜드 아스타일을 한국 전통미와 조화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팝업 스토어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인력한 느낌을 준다. 특히 이 매장에서는 현대적으로 해석한 한국적인 문양을 넣은 에코 백과 노트 등 갤러리백화점에서만 판매하는 '갤러리X모노클' 콜라보레이션 상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이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은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말고도 갤러리미 디자인 매거진, 갤러리미 명품관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에디터 **고성연**



MONOCLE

**Exhibition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전>**

'고원에 감성을 일여 예술로 빚어냈다'라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흥미로운 설치전이 열리고 있다. 서울 동묘동에 자리 잡은 대림미술관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펼쳐지는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전>이다. 전제라는 수식어를 단 런던의 아티스트 그룹 트로이카(Troika)의 대표작과 신작을 접할 수 있는 이 전시는 감각을 총동원하는 '경험의 향연'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동심원 형태로 번져 가는 과정을 담은 '스몰 뱅(Small Bang)' 같은 작품이 시각적인 감성을 가볍게 터치해준다면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연기의 움직임은 검은 그늘음으로 기록했다는 '라비린스(Labyrinth)', 전기 불꽃으로 종이 태운 흔적이 만든 근사한 결과물인 '라이트 드로잉(Light Drawing)' 같은 작품은 눈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고 3층 전시장에 들어서 기류로 차는 형형색색의 빛줄기가 분수를 연상케 하는 '퍼시스턴트 일루전스(Persistent Illusions)'를 보면 감탄사를 절로 뱉어 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 1백만을 자랑하는 트로이카의 대표작 '클라우드(Cloud)'도 최근 합류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원형 플립 장치를 표현한 디지털 조형물로, 시청자를 자극하며 '여행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대림미술관에서는 이 전시회를 홍보하면서 '집중 감성을 깨워주는 예술을 내세웠는데, 어찌 보면 자각에 대한 총체적인 재창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전시 도록에 글을 쓴 오영욱 건축가가 던진 질문처럼 '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까?', '어째서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각성을 해보면서도 재미까지 얻을 수 있는 게기가 아닐는지. 홈페이지 [www.daelimuseum.org](http://www.daelimuseum.org) 에디터 **고성연**



Roger Vivier PARIS

NEW OPENING  
갤러리미명품관 EAST 2층  
02-6905-3370

RogerVivier.com



for her  
**Selection**

귀여운 돌고래, 붉은 산호와 조개, 깊은 바닷속 꽃게까지, 푸른 바다를 품은 매력적인 서머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eung eun*

이그조릭 무드의 라일 파이론 쇼퍼백, 35X29cm, 2백만원대 무도차안포.

블루 컬러의 파인톤을 준 스트랩이 노스트라 17만 9천 원.

돌고래 패턴 팬츠 79만 5천 원 무도차 레조르 by 톨 그레이하운드.

가하학적 구조가 돋보이는 골드 원석 링 가격 미정 클로에.

산호를 연상케 하는 코랄빛의 크리스탈 네크리스 6백만 원대 다울.

수영을 즐기는 여성의 모습을 워트 있게 표현한 실크스카프 40만 원대 에트메스.

산호 장식의 로브 디자인으로 아티스틱 연상케 한 백엔드 샵의 올림피아 by 리콜레비움.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케스 18만 원에 에디 파커 by 로이 로트.

귀여운 라테일 모티브의 플랫 샌들 45만 원 모스키노 합앤시크.

남영 프라트가 내추럴한 라인 오피스 1백 65만 원 뽀폴렌.

스페인산 유랑형 에스테이트 아방트 에디터 김유진

- 톨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 미쏘니 02-547-4202
- 무도차안포 02-456-0285
- 다울 02-513-3232
- 에르메스 02-544-7722
- 클로에 02-515-1196
- 팬디 02-2056-9023
- 갤러리아 백 열티 02-3449-4575
- 라플렉시움 02-6905-3775
- 발프 로렌 02-545-8200
- 모스키노 합앤시크 02-6905-3892
- 무이 로프트 02-3446-8074
- 거르미에 1566-7277

# CÉLINE



갤러리아 East 신세계 북점 신세계 강남점 신세계 센텀시티 현대 무역센터점 현대 무역센터점

CÉLINE PARIS



청량한 블루 컬러의 폴라리제 패딩이 돋보이는 셔츠. 가격 미정. **마이크 by 마크 제이플스.**

멋스러운 머린 룩을 완성해줄 페도라 88만5천원 **벨루티.**

요트에서 영감을 받은 스트라이프 팬츠 가격 미정 **지팡시 by 분다삼.**

블루 컬러 스웨이드 벨트 43만원 **발라.**

부드러운 촉감을 향상시킨 아이리싱 처리된 **오메가.**

나미 가족 소재의 워킹 파우치. 24.5X14.5cm, 68만5천원 **보태가 베네타.**

# for him Selection

푸른 바다에 풍덩 빠질 준비가 되었는가. 강렬한 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줄 머린 모티브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eung eun*



미러 렌즈가 유니크한 블루 선글라스 30만원대 **레이먼 by 록스타가 코리아.**



열도, 블루 바퀴가 포인트인 화이트 스케이트 보드 13만9천원 **스테레오 바이널즈 by 바이커.**



태슬 장식과 화이트 & 블루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스웨이드 보트 슈즈 68만5천원 **에르메네일도 제나.**



머린 룩에서 착안한 화이트 & 네이비 스트라이프에 레드 컬러의 로프를 위트 있게 표현한 서머 에디션 30만원대 **상동.**



남성용 넥타이 12만2천원 **반줄과 닷 패턴이 12만2천원. 펜츠 38만원 **볼 브라운.****



모프를 완성해 주는 데에 스트라이프 브라운색 20만 원대 **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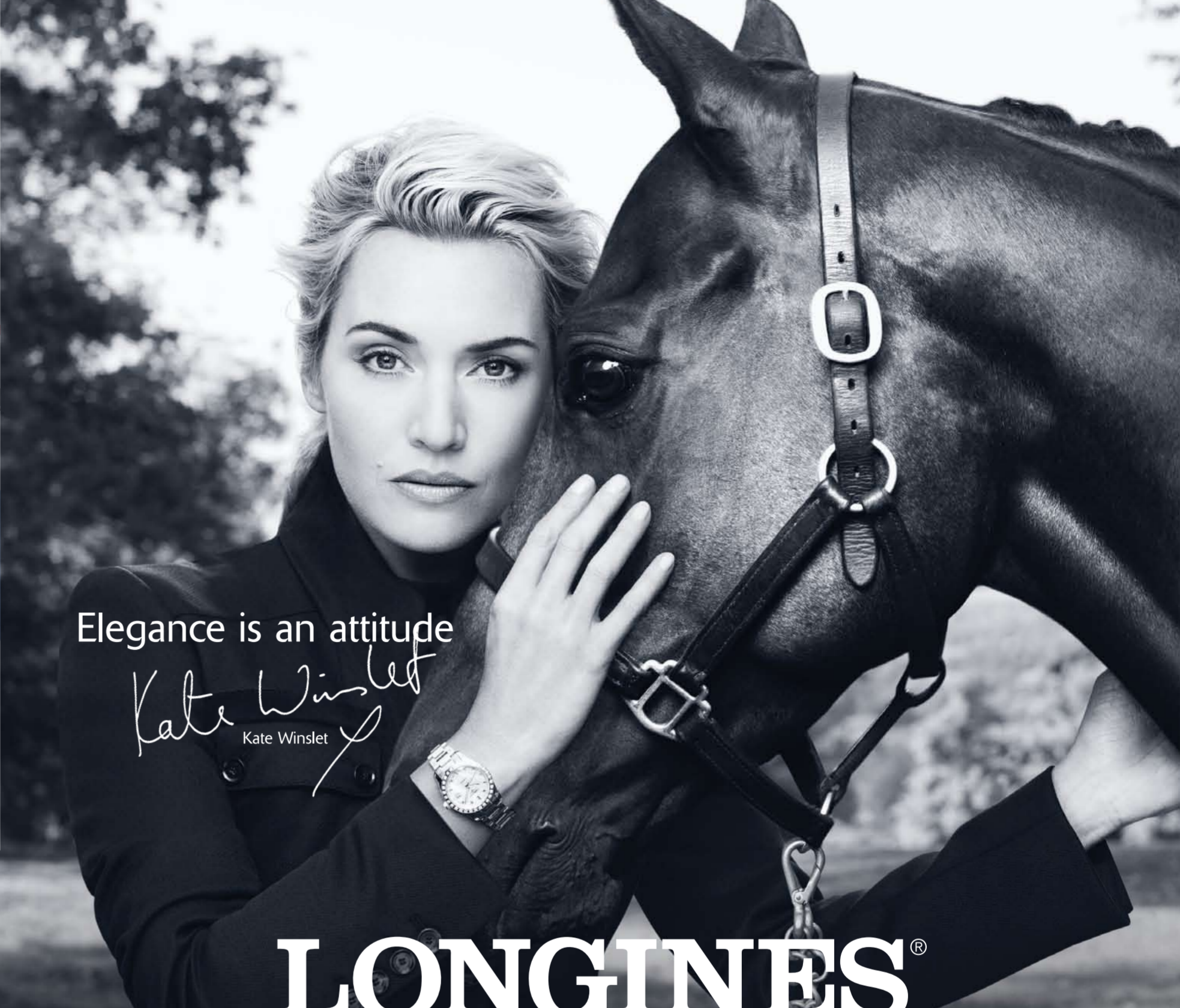


꽃 모티브의 카모스 링크 60만원대 **에르메스.**

- 벨루티 02-547-1895
- 분다삼 02-3444-3300
- 보태가 베네타 02-6905-3791
- 오메가 02-511-5797
- 발라 02-3467-8935
- 바이커 02-543-1270
- 에르메네일도 제나 02-511-0285
- 록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 상동 02-2188-5100
- 말프 로렌 02-545-8200
- 트즈 02-3438-6008
- 에르메스 02-544-7722
- 겐조 02-6905-3523
- 톨 브라운 02-6905-3505
- 마크 by 마크 제이플스 02-6905-3612



남실거리는 피도의 모습을 패턴화한 소가죽 토트백. 39.5X39.5cm, 1백99만원 **겐조.**



Elegance is an attitude

*Kate Winslet*  
Kate Winslet

# LONGINES®



Conquest Classic

New Opening AK플라자 수원점 6월 20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등포 경기 인천 센텀시티 의정부 충청 갤럭시백화점 타임월드 센터시티  
 롯데백화점 잠실 부산 대구 영등포 청량리 분당 평촌 대전 광주 센텀시티 AK플라자 수원  
 롯데면세점 본점 잠실 코엑스 부산 제주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 인천공항 워커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동화면세점



interview  
지상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발굴해낸  
이탈리아 마에스트로

# Giulio Cappellini

이탈리아의 지성 조 폰티(Gio Ponti)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밀라노를 칭송했다. 밀라노 출신인 줄리오 카펠리니는 그런 맥락에서 이 도시가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인물이다. 자신의 이름을 단 명품 가구 브랜드 카펠리니를 이끌면서도 1970~80년대부터 탁월한 감각과 열린 마음으로 다수가 열광하는 이탈리아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낸 '텔런트 스카우터'이기 때문이다. 단지 회사가 고용하는 외부 디자이너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창조적인 파트너십을 일구내 세계적인 대가가 된 다국적 디자이너들의 대부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카펠리니. 밀라노에서 직접 만난 그의 세상은 여전히 참 둥근 듯했다.

영국이 자랑하는 스타 디자이너 제스퍼 모리슨과 톰 디슨, 21세기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디자이너 듀오인 프랑스의 부물렉 형제, 파격적인 미니멀리즘으로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본의 구루 구라마타 시로와 '저팬 웨이브'의 신성으로 꼽히는 디자인 그룹 넵도, 고전미와 현대적 요소를 환상적으로 엮어내는 네덜란드 출신의 마르셀 반더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로 유명한 호주 출신의 거성 마크 뉴슨. 디자인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들어본 적 있을 법한 굵적굵직한 다국적 이름들을 담은 이 명단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바로 세계 디자인계를 주름잡는 '미다스의 손'인 줄리오 카펠리니(Giulio Cappellini)라는 인물을 초기에 만나 세상에 존재감을 각인시킨 슈퍼 디자이너들이라는 점이다. '배의 눈을 지닌 카펠리니가 발굴하거나 키워낸 스타 디자이너들을 일부나마 열거해놓은 이 목록에는 아직도 '참신한 미래의 재목'으로 채워질 빈 칸이 많이 남아 있는 듯 보인다.

**타고난 '축'을 열정적으로 펼쳐온 '크리에이터들의 크리에이터'**  
올해 만 60세인 줄리오 카펠리니는 그 자신도 성공한 디자이너면 서도 아트 디렉터로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찾아낸 최고의 인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아트 디렉터로 디자인계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의 대 부와도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라틴어로 '제작자(man as maker)' 라는 뜻을 지닌 호모 파베르(Homo Faber)의 출현 시기를 놓고 학 자들은 한 손에 물건을 쥌 채 다른 손으로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을 만 큼 단단히 물건을 잡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나타난 시점으로 본다 는데, 카펠리니는 이처럼 지능적인 손만 갖춘 게 아니라 '재능을 감 지하는 눈도 타고난 듯하다. 그는 어쩌면 그렇게 지지지도 않고 새 로운 재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색깔이 다양한 인재들을 다독이 며 리더십을 발휘할까? "저는 항상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진 않았습 니다. 다른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늘 흥미

롭지요." 지난해 서울에서 잠시 담소를 나눈 데 이어 지난 4월 가구 박람회가 열린 주에 밀라노의 카펠리니 쇼룸에서 마주한 그는 마침 자신이 일본의 떠오르는 별로 키워낸 넵도의 리더 오키 사토(Oki Sato)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친구나 스승일 지 내는 삼 촌, 혹은 아버지처럼 다정해 보이는 카펠리니는 장난스럽게 미소 를 지었다. 그들이 처음 인연을 맺은 것도 밀라노 가구박람회에서였 다. 당시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오키 사토는 신진 디자이너들 의 등용문인 '살로네 사렐라테'에 참가했다가 카펠리니의 눈에 띄었 다고 한다. 이 만남으로 넵도는 2006년 카펠리니 브랜드와의 첫 작 품인, 눈송이 모양을 모티브로 삼은 스크린 '유키(Yuki)'를 선보이면 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오키 사토는 열정이 가득하고 긍정적이 며 굉장히 열린 사람이에요. 그 덕분이죠 그의 작품은 다분히 실험 적이고 현대적이죠."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에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입힌 혁신가**  
이처럼 '열린 마음'을 지향하는 성향은 서로 닮은 것 같다. 카펠리니 는 이탈리아 디자인이 맹위를 떨친 1980년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만 창조적 지평을 넓히는 일에서는 절대로 국적 따위에 얽매이지 않았다. 타고난 '축'으로 세계 곳곳에 있 는 참신한 감각을 탐지하고 그 재능의 소유자를 찾아 열정적 으로 구애함으로써 결국에는 카펠리니표로 소화시켰다. 그 는 1946년 설립한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2세 경영인이 자 크리에이터였지만 원래 선천이 고수한 스타일은 숙련된 장 인들 위주로 꾸러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카펠리니의 가치관 은 전혀 달랐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문화적 사고를 갖고 기 능성과 표현성, 자못 이질적인 다채로운 스타일을 묘하게 조 합해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추구한 것이다. 사업 계승자로 서 장인 정신에 기반한 베이커의 전통은 유지하되 확연히 다



1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카펠리니 쇼룸에서 만난 줄리오 카펠리니. 브랜드로서의 카펠리니는 현재 카사나 등과 함께 폴트로나 프리우 그룹에 속해 있다. 2 공작(Peacock)이란 이름이 딱 어울리는 의자. 스튜디오 트로키(Studio Troci)의 2009년 작품. 3 제스퍼 모리슨의 초기 명작 '싱킹 맨의 체어'의 브라운 버전으로, 올해 선보일 예정. 4 파격적인 감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파비오 콜롬보의 테이블 '오르그(Org)'는 사춘기형 심리에도 견고하게 세워진다. 5 톰 디슨을 세상에 널리 알린 '엑스-체어(X-Chair, 1989)'. 6 범상치 않은 감성을 지닌 디자인 구루 구라마타 시로의 '멜드라인' 수납장. 7 카펠리니 본인이 디자인한 대표 작품 '봉(Bong, 2004)'. 8 카펠리니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 그룹 중 하나인 미스트오(Mist-o)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꽃병 '아틀란티스(Atlantis, 2014)'. 9 토머스 에릭슨의 귀여운 악동 수납장 'PO/92088(1992)'. 10 호주 출신의 스타 디자이너 마크 뉴슨의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펠트 체어(Felt Chair, 1993)'. 11 평범한 분위기와 멋진 색조가 일품인 '멜트다운 램프(Meltdown Lamp)'. 스웨덴의 신성 요한 린드스텐이 2013년 파스텔 톤으로 처음 선보였다. 12 카펠리니가 아트 디렉터로 임명한 제임스 직의 명품 가방 브랜드 콜롬보(Colombo)가 일본 디자인 그룹 넵도와 울물 선보인 한정판 '포켓(Pocket) 컬렉션'. 13 넵도를 이끄는 디자이너 오키 사토는 가방과 핸들의 관계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캔버스 천과 악어가죽을 소재로 동일한 사이즈지만 디자인은 각각 다른 8개의 백을 만들어냈다. 역시 한정판.



른 자기만의 색깔과 정신을 입혀, 그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자유롭고 절충주의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간 저력은 바로 이런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초기에 만난 각별한 인연으로 꼽는 일본의 구라마타 시로는 카펠리니 브랜드 특유의 심세하면서도 '이중 교향적인' 개성을 뚜렷하게 각인시킨 존재다. 1970년에 나온 파격적 형태의 가구 시리즈인 '프로젝트 컴퍼우티(Progetti Compiuti) 사이트 1' 같은 작품이 그 촉 발제였다. S자 곡선으로 흰 선이 눈길을 사로잡 는 이 독특한 '몰결 모양 서랍장'은 시로 본인 에게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첫 작품이었 으며, 지금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인기 제 품이다. 카펠리니는 생전 처음 도쿄에 갔다가 갤러리에서 구라마타 시로의 작품을 보고 한눈 에 반했다고 한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크리에이터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루스트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다. 수십 년 전 이탈리 아의 거장들도 그에게서 엄청난 감동을 받아 '알'을 냈다. 1978년 알레산드로 멘디니라는 걸출한 크리 에이터가 모더니즘에 반기를 든 작품으로 내세운 '프루스트 체어 (Proust Chair)'가 카펠리니의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필자는 멘 디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는 당시 프루스트의 대작 <잃어버 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얻은 영감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해 커다 란 바로크풍의 앤틱 의자에 마치 점묘법처럼 알록달록한 점들을 흠뻑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의 막을 열었다고 평 가받는 이 의자는 기하적인 무늬와 직물을 입힌 '프루스트 지오메트 리카(Proust Geometrica)' 버전(Cappellini, 2009)과 훨씬 더 저 령한 플라스틱 버전(Magis, 2011)으로도 나와 있다. 미래지향적 인 조형물 같은 스타일로 강력한 팬덤을 거느린 마크 뉴슨도 잊을 수 없는 협력자다. 뉴슨은 플라스틱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알루미 늄 판을 덮은 미래적인 느낌의 '록히드 라운지(Lockheed Lounge, 1986)'로 주목받았는데, 카펠리니는 그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고 한다. 카펠리니는 지인들을 통해 연락이 닿은 뉴슨을 이탈리아 로 초대했고, 둘이 함께 파이버 글라스, 금속, 폴리우레 탄 등 다양한 재료로 갖가지 작업을 시도했다. 1993 년에 나온 독특한 유선형의 파이버 글라스 소재 의 자인 '펠트 체어(Felt Chiar)' 같은 뉴슨의 흥미로 운 작품들이 바로 그렇게 탄생했다. 지금도 막역 한 사이인 영국의 미니멀리스트 제스퍼 모리슨 의 경우는 우연히 전시를 보고는 스튜디오로 찾 아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또 하나의 명작 '싱킹 맨의 체어(Thinking Man's Chair, 1998)'. 팔걸이에 작은 트레이가 부착돼 있어 음료 수가 담긴 컵을 놓아두고 제품명처럼 '생각'에 오롯이 잠기는 데 유용할 듯한 이 정감 가는 의자는 올해 브론즈 (bronze) 버전으로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한국과의 인연으로 패션에도 도전하다**  
이처럼 많은 인연을 만나 세계적인 아트 디렉터로 발돋움한 카펠리니는 지지지도 않는지 창조 반경을 더 넓히고 있다. 그는 최근 제일모직이 인수한 이탈 리아 명품 악어 백 브랜드 콜롬보(Colombo)의 아 트 디렉터로 활약하면서 패션 액세서리에도 도전장을 내 밀며 한국과도 인연을 맺게 됐다. 물론 자신의 풍부한 관계망 속 다 국적 인재를 동원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디자인 그룹 넵도의 오 키 사토가 그 첫 주자다. 카펠리니는 "핸드백 자체는 새로운 분야지 만 콜롬보와 같은 이탈리아 전통 강호와의 작업이라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최근 디자인계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 간에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화두이며, 결국 디자인은 하나로 통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밀라노에서 탄생한 브랜드인 콜롬보인지를 애정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고, 아내도 콜롬보 백을 갖고 있기에 친숙한 브랜드지요. 대량생산이 아닌 섬세한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전통을 계승해 온 콜롬보가 고유의 DNA를 잃지 않으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콜롬보-넵도의 첫 컬래버레이션 시 리즈에 대해 그는 만족했을까? 실험적인 기지가 돋보이는 넵도의 첫 작품인 '포켓(Pocket) 컬렉션'은 포켓과 백의 기존 관계를 반전시켜 마치 커다란 포켓 안에 또 하나의 가방이 들어 있는 듯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방과 짝을 이룬 선글라스 케이스, 미니 백, 후드폰 케이스와 키홀더가 앙증맞다. 카펠리니 못지않게 열정이 넘치는 넵도는 가방과 핸들의 기초 적인 관계를 연구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엮어낸 '8 백 스(8 Bags)'를 자신해서 디자인했다. 콜롬보의 상징인 악어가 죽을 최상급 캔버스 소재와 간결하면서도 세련되게 조합한 이 시리즈는 카펠리니의 마음에도 꼭 들었던 것 같다. 한정판으로 나온 '8 백스' 시리즈를 판매 포트폴리오에 올려두면 어떻겠 나는 필자의 제안에 그는 "안 그래도 생산을 진행하도록 강요 해볼 생각"이라며 웃었다. 카펠리니가 지휘하듯 나 온 콜롬보의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이끌 다음 타 차는 역시 그가 몸소 도와야 하는 네덜란드의 스타 디자이너 마르셀 반 더르스가 될 듯하다. 노끈을 열기설기 묶어놓은 듯한 모양새지만 열 경화성 수지를 흡수한 끈이라 100kg이 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매듭 의자(Knotted Chair, 1996)'를 카펠리니와 함께 데뷔작으로 선보여 바로 스타덤에 오른 반더르스는 현재 '모오이(Mooi)'라는 브 랜드를 이끄는 동시에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승승장구하 고 있다.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특징인 넵도와는 달리 섬세하고 화려 한 아르데코풍을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디자인 언어를 구사하는 반 더르스는 과연 어떤 작품을 창조해낼지 살짝 궁금해진다.

**노장은 아직도 꿈을 끈다, 설렘을 담은 눈빛**  
대체 자신의 작업에 몰두할 시간이 있는지 걱정될 정도로 바쁜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도 여전히 '새로움'에 목말라 있는 듯하다(눈여겨 보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노장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꿈'을 언급했다. 세계를 무대 로 수집한 이미지로 가득 찬,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굳이 느낄 필요 가 없는 아름다운 책을 엮어내는 것이란다. '디자인의 사해 동포주의'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풍 부한 다문화적 바탕에 카펠리니라는 브랜드가 지닌 특유의 정교함과 실험 정신을 부단히 투영시켜온 그다 운 꿈이 아닐 수 없다. **IS**

에디터 고영민 밀라노 현지 취재



# Explore the deepest

끝을 알 수 없는 바닷속,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오직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뿐이다.  
정확성과 가독성이 뛰어난 다이버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론) 크로노스워스 타임마스터 크로노그래프 데이 데이트 올해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타임마스터 라인 중 가장 큰 인상을 얻은 컬렉션의 워치, 선명한 슈퍼루미노바 인덱스와 핸즈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요소를 드러낸다. 100m 방수 가능한 모델로 크로노그래프, 달, 3시 방향의 요일과 날짜 창, 볼드한 시침과 분침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8백60만원대, 문의 02-3467-8718

카르띠에 칼리브 드 카르띠에 워치 로마숫자 인덱스와 견고한 케이스가 특징인 카르띠에 최초의 다이버 워치, 올해 SIH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된 모델이다. 300m 방수 기능을 갖추어 ISO 6425 인증을 받았으며, 스틸 케이스에 라바 스트랩을 매치했고, 인티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브 8904-FS를 장착했다. 1천2백만원대, 문의 1566-7277

브러게 마린 GMT 5857 스틸 케이스에 GMT 타임 존을 정찰한 클래식한 다이얼의 마린 워치, 라바 스트랩과 직경 42mm의 케이스에는 마린 워치의 특성을, GMT 타임 존과 다이얼에는 클래식한 브러게의 감성을 담았다. 투명한 백 케이스를 통해 셀프윈딩 칼리브 571F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천3백만원대, 문의 02-3149-9551

오메가 씨미스터 다이버 300 크로노그래프 레기타 44mm의 볼드한 블랙 다이얼에, 3시 방향에는 옐로 컬러 5분 카운트다운 트래커를 장착한 30분 카운터가 위치한다. 배럴의 그레이 컬러와 다이얼의 옐로 컬러 디테일이 명쾌한 대비를 이룬다. 오메가 코-엑스업 칼리브 8330을 장착했으며 300m 방수가 가능하다. 7백만원대, 문의 02-511-5737

블링광 피렐리 패럴즈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컴플리트 칼리브 시원한 블루 시메이티 컬러의 다이얼이 인상적인 블링광의 상징적인 워치, 가죽 스트랩 크로노그래프 모델에 문패이즈와 컴플리트 칼리브 기능을 추가해 완성도를 높였다. 총 4백48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셀프윈딩 무브먼트인 칼리브 66BF8을 장착했다. 다이버 워치의 고전미, 할 수 있는 컬렉션이다. 2천9백만원대, 문의 02-6905-3367

몽블랑 스포츠 DLC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메트릭 블링의 강렬함이 느껴지는 몽블랑 스포츠 워치 컬렉션, 스틸 케이스에 블랙 DLC(Diamond Like Carbon) 코팅으로 마무리했다. 블랙 컬러 다이얼과 실버 컬러 인덱스에 메트릭 블링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했고 200m 방수가 가능하다. 7백73만원, 문의 02-3440-5734 에디터 배미진



Innovatively Designed for Journey



## Marshmallow

Ergonomic curved design for sitting  
Compact size for carry-on  
Hi-shine colors for brightening up your journey





**In the paradise**  
 작열하는 태양, 스글 나기 가득한 바다에서 휴식을 즐기는 남성에게 여유로운이 물에는 럭셔리한 패션 소품이 스타일을 빛내줄 하트 카드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악어가죽으로 리스리함을 위한 카이먼 샌들 1백20만원 **구피**, 라벤 머플러 60만원 **키튼**, 캔버스 소재와 고급스러운 송이재가죽의 조화가 멋진 트레클 백, 45x23cm, 3백70만원 **키튼**, 장인이 손으로 직접 뿜은 소가죽 핸드백이 문방이 트레클 토트백, 46x32cm, 2백70만원 **구피**, 가벼운 라피아 페도라 가격 미정 **미스티 김 by 분다삼**, 블랙 선글라스 34만원 **폴 스미스 by 록스타카 코리아**, 휴대용 체스 게임 세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진한 타바코 향과 꿀에 절인 과일 향이 이국적인 블루트 오드 퍼퓸 75ml 19만원 **인디고**.



**Enjoy, reports**  
 가벼운 소재,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겸비한 스포츠 워치엔드 백은 레포츠를 즐기는 활동적인 남성에게 추천한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포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소가죽 화이트 스포츠 백, 47.5x34cm, 1백10만원 **제나 스포츠**, 마러 렌즈 보잉 선글라스 30만원 **레이벤 by 록스타카 코리아**, 하늘색 악어가죽 벨트 1백28만원, 블루 컬러 소가죽 파우치 2백88만원 **모두 키튼**, 우수한 그림자를 자랑하는 자지 컴비 골프 장갑 4만5천원 **잭 맨상웨어**, 화이트 골프 슈즈 25만8천원 **잭 니클라우스**, 오토 스포츠인 아이라이프의 열정을 담은 우디 프레스 아로마틱 향의 루나 로사 오드 퍼퓸, 50ml, 8만5천원 **프리다**, 니트 스타일 핑크 장식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더한 바이저 5만8천원 **맨상웨어**, 가벼운 PVC 소재와 소가죽 트라킹이 조화를 이룬 나일론 더블 백, 45.4x23cm, 75만5천원 **탈프 로렌 블랙 라벨**.



# enjoy, Weekend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주말 여행을 위한 남성들의 워치엔드 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ity tour**  
 도심 속 시티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트렌디한 액세서리와 세련된 워치엔드 백을 선택해 스타일을 살려줄 것.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의 아이콘 중 하나인 네오 그래픽의 사각 실루엣과 유연한 노메드 레더가 아우러져 실용성과 세련미가 돋보이는 네오 그래픽 워치엔드 백, 46x42cm, 9백만원 **루이 비통**, 송이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러운 송이가죽 소재의 옥서 백, 36x22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블루 패턴 소가죽 36만원 **에르메스** **제나**, 브라운 소가죽 벨트 58만5천원 **구피**, HD 동영상 촬영과 사진 전송이 가능한 파워샷 G X mark2 카메라 가격 미정 **캐논**, 보잉 선글라스 30만원 **제나**, **솔트 by 율타림 W**, 시티 가이드북 각각 4만원 **루이 비통**, 발롱 블루트 오드 퍼퓸에 트레클 클락 1백20만원 **까르띠에**, 블루 스퀘이드 로퍼 70만원 **토즈**.



**Business trip**  
 비즈니스 트립에는 피할수없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룩이 정답이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가죽 레이스와 울링 슈즈 1백90만원 **폴 포드**, 특수 처리 공정을 통해 염소가죽 본연의 결을 아름답게 표현한 워치엔드 브리프케이스, 42x29cm, 3백만원 **보테가 베네타**, 핑크 컬러 실크 타이 39만원 **브리오니**, 아웃 포켓에 지갑이나 여권을 꽂을 수 있는 트레클 리포터토트 겸 숄더백, 38x28cm, 5백25만원 **벨루티**, 소가죽 다이아리 케이스 94만원 **고야드**, 블랙 벨테 인경 34만원 **폴 스미스 by 록스타카 코리아**, 64GB 아이패드 에어 96만원 **애플**, 브라운 로고 버클 벨트 78만원 **브리오니**, 로드스터 플레그 데코 민트필 1백만원 **까르띠에**, 프레스 우디 푸저로 향이 클래식하고 모던한 레전드 오드 퍼퓸 50ml 8만원 **몽블랑**, 에디터 권유진



스타일링을 위한 이니셜은 여행



**OFFICIAL TIMEKEEPER**



SPECIAL EDITION  
 Tissot PRC 200 17th Asian Games  
[www.tissot.kr](http://www.tissot.kr)

벨루티 02-3446-1895 브리오니 02-540-4723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폴 포드 02-3438-6234 고야드 02-3448-4778 애플 1544-2662 루이 비통 02-3432-1854 토즈 02-3448-8105 에르메스 02-544-7722 잭 니클라우스 1588-7667 탈프 로렌 블랙 라벨 02-545-8200 에르메스 제나 02-511-0285 캐논 1588-8133 까르띠에 1566-7277 율타림 W 02-6911-0845 구피 1577-1921 키튼 02-6905-3787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분다삼 02-3444-3300 인디고 02-514-5167 맨상웨어 02-772-3690 몽블랑 080-800-8809 프리다 02-3443-5050

# Silver age

투박한 듯하면서 섬세하고, 가벼운 듯하면서 럭셔리한,  
 주얼리 트렌드를 사로잡은 실버 주얼리.  
 묵직하고 대담한 실버 주얼리의 신세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양한 정음 매직한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1백90만원대 핀도라, 실버 체인을 늘어뜨린 리플 네크리스 8백만원대 에르메스, 목걸이 가운데 놓여 있는 칼리 밴드 4백만 원대 에르메스, 심플한 1837 키트 브레이슬릿 1백만원대 티파니, 광택 배의 황태를 본뜬 본 키트 브레이슬릿 1백48만원대 티파니, 체인 모티브의 캄치 밴드 4백만원대 에르메스, 장묘 원도 키트 1백만원대 글렌드 말루프, 사진 한가운데 있는 페이스 체인과 실자 모티브 팔링의 펜던트 1백70만원대, 골드한 피라미드 링 가격 미정, 체인 메탈 브레이슬릿 8백만원대 모두 크롬하츠, 본래의 라지 후프 이어링 30만원대 글렌드 말루프, 더블 아르판체트 네크리스 8백만원대 에르메스, 아틀라스 밴드 1백27만원 티파니, 아틀라스 밴드 가운데 놓인 스톤 링과 브리지 링 20만원대 글렌드 말루프, 장동진 2011 최영해 유명해진 옷핀 모티브의 세이프티 핀 브로치 가격 미정 크롬하츠, 에디트 베미진

에르메스 02-544-7722 티파니 02-547-9488 글렌드 말루프 02-582-7495 크롬하츠 02-3443-0055 핀도라 02-551-7038

스타일링: 박건우



beyond the space, beyond the sound



ProLogos Wireless System



골드문트 한국공식수입사 02 764 6468 골드문트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02 516 9081 골드문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 553 9081 www.audiogallery.co.kr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 구찌 벨루 소퍼 백 구찌의 시그니처인 대나무 핸들과 모던하고 재미난 실루엣이 만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소퍼 백, 넉넉한 사이즈와 부드러운 가죽 소재, 탈착과 같이 조잡이 가능한 솔더 스텔로 실용성을 더했다. 가방 전반에 새겨진 'Gucci Made in Italy' 로고가 특징이며, 라자파 미디엄 두 가지 사이즈로 선보인다. 34X18cm 2백56만원, 문의 1577-1921

**루이 비통 락릿 백** 1958년에 첫선을 보인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 백, 락릿이 이번 시즌엔 부드러운 보 카시미어(veau cachemire) 가죽과 만났다. 락릿의 곡선과 상징적인 LV 자물쇠로 오리진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기능적인 핸들과 그래픽적인 중앙의 V 세이프가 조화로운 대칭을 이루도록 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32X21cm 5백만원대, 문의 02-3432-1854

**프라다 두벨레 백** 가방의 길이는 사피아노로, 인장은 양극으로 이루어진 가방으로, 인장과 길감이 모두 가죽인데 무겁지 않다는 것이 특징. 이는 지난 시즌 큰 인기를 끌었던 사피아노 토트백을 보다 부드럽고 가볍게 변형한 제품이다. 가방 앞쪽에는 가죽 스텔 버튼을 더해 버튼을 아람을 에 따라 가방 모양을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35X27cm 3백30만원대, 문의 02-3218-5331

**말포 로렌 그릭 키 프린트 소프트 라키 백** 라키 백은 말포 로렌의 아내인 라키 로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백이다. 기하학적 패턴이 특징인 이 제품은 라키 백의 2세대 버전. 클래식한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차지는 유연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31X29cm 3백만원대, 문의 02-545-8200

**에르메스 콘스탄스 백** 1969년에 탄생한 콘스탄스 백이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질리지 않는 클래식하고 세련된 디자인 때문. H 로고 버클과 미니멀한 디자인,

실용적인 솔더 스텔까지 포함한 폭에는 물론 캐주얼까지 적절하게 믹스 매치할 수 있다. 기존의 미니, 마이더로 미니 사이즈와 더불어 새롭게 선보인 29cm 사이즈까지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29.5X23cm 1천만원대, 문의 02-544-7722

**디올 뱃지 레디 디올 백** 하운즈투스, 로즈, 카니자와 같은 디올의 상징적인 모티프를 담은 배지로 개성을 더한 레디 디올 백. 기존의 클래식하고 우아한 레디 디올 백에 남성적인 배지를 부착해 탄력을 주는 액티브한 여성의 연모를 표현했다. 24X21cm 7백만원대, 문의 02-513-3232

**토즈 D-큐브 백** 우아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온 토즈의 D 백을 실용적이고 모던하게 재해석한 제품. 보다 각이 잡힌 실루엣으로, 앙증맞은 초미니 사이즈와 넓은 수납공간이 돋보이는 라지 사이즈, 그리고 화이트와 버건디, 버건디와 핑크 등의 감각적인 컬러 대비 매칭을 통해 다채로운 컬러를 선보인다. 26X19cm 1백80만원대, 문의 02-3438-6008

**펜디 셀라리아 블루 미니 아델 백** 펜디의 오랜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셀라리아' 닥터 백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출시한 미니 아델 백. 브랜드 창시자인 아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제품은 로마노 가죽과 비스텔로 셀라리아 가죽으로 제작해 견고하고 모던한 실루엣을 자랑하며 선풍하고 다채로운 컬러가 매력적이다. 22X18cm 3백34만원, 문의 02-2056-9023

**셀린 타이 백** 셀린의 라지 사이즈 새롭게 클래식 백으로 재해석한 타이 백, 핸들 부분의 매듭 장식과 가방의 앞면을 덮는 가죽 패킷이 돋보인다. 앙증으로 펼쳐지거나 인으로 잡아넣어 두 가지 모양을 연출할 수 있다. 28X30cm 4백15만원, 문의 02-540-0486 에디터 권유진

※ 화보에 나온 모든 가방은 수입 가구 브랜드 '인피니티'의 막살토(MAXALTO) 컬렉션.

get **New classics**

올드하다는 편견을 뒤로한 채 매 시즌 새롭게 해석해 선보이는 클래식 백은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믹스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시간이 흘러도 우아함이 변치 않을 2세대 뉴 클래식 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링: 노유현, 화보: 김소, 헤어: 인피니티, 메이크업: 인피니티, 문의: 인피니티, www.infinite.co.kr



swatch<sup>®</sup> SCUBA libe

# T-shock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터치, 아티스틱한 프린트, 대담한 컬러 조합과 다채로운 문양이 빛이난 티셔츠 한 장의 힘. *photographed by yum jung loon*



패턴이 화려하지만 빈티지스러운 색감과 터치로 핑키한 느낌이 묻어나는 티셔츠 82만원 **필립 폴레인**, 문의 02-544-9132



남자의 얼굴과 손을 실로 표현한 콤플렉션 라인 티셔츠 61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만화가 휴고 프라트(Hugo Pratt)의 작품을 담은 티셔츠 24만3천원 **코르토 칼테제 by 각삼**, 문의 02-3446-9949



그래픽적인 프린트와 강렬한 컬러 대비가 인상적인 티셔츠 가격 미정 **다음 옴므**, 문의 02-513-3232



중앙을 가로지르는 패턴과 블루 컬러 밑단이 포인트인 티셔츠 79만원 **황방옴므**, 문의 02-6905-3496



실물과 가까운 동물 모티브 프린트가 강한 인상을 주는 티셔츠 75만원 **발랑**, 문의 02-6905-3585



네크라인과 어깨선에 빈티지 왕상을 더해 자연스러운 멋이 드러나는 화색 티셔츠 31만원 **마틴 마르치엘라**, 문의 02-6905-3676



블랙과 화이트로 이루어진 베이비 캣 프린트 티셔츠 50만2천원 **생로랑**, 문의 02-3479-1414



반복되는 패턴과 상큼한 컬러 조합이 눈에 띄는 티셔츠, 화이트 팬츠에 매치하면 청량감을 더한다. 27만원 **올스미스**, 문의 02-3447-0278



손으로 그린 그림을 그대로 티셔츠로 옮긴 듯한 짙은 키키 컬러 티셔츠 50만원대 **발렌티노 by 무이**, 문의 02-3446-8074



달, 등대, 새우 등 바다 모티브의 프린트로 가득 채운 네이비 티셔츠 58만원 **롤 브라운**, 문의 02-6905-3505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에디터 이예진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요리중인 엄마의 주방으로

실외기 없이 간편하니까  
외출준비하는 누나의 화장대로

전기료가 부담 없으니  
더워타는 남편 곁에 하루종일

바이러스 없는 청정바람이라  
눅눅한 장마철 부모님 방으로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니까  
시험공부하는 아이 책상 위로

새로운 바람이  
우리집에 불어옵니다

처음 만나는 포터블쿨러  
삼성 쿨프레소



삼성 포터블쿨러 쿨프레소 모델명 AZ10H9990WAD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 에어컨 바람

## 삼성 포터블쿨러 쿨프레소

- 언제 어디서나 실외기 없이 작고 가벼워 이방 저방 자유롭게
- 시원한 에어컨 바람 미니 인버터 컴프레서의 기술력으로 주변온도보다 약 10도 더 시원하게 운전범위 실내온도 20℃~35℃ (자사 실험치)
- 전기료 걱정 없이 선풍기 2대 수준의 낮은 전력량으로 전기료 부담 없이 가볍게 약동 모드 시 85W/h (자사 선풍기 때 약동 기준 40W/h)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투명한 스트랩과 카디란 주얼 장식을 더한 굽이 포인트인 샌들 1백53만원 **자형시**, 화려한 태슬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샌들 1백45만원 **MSGM by 무이 로프트**, 화이트 스트랩에 스티드를 장식한 샌들 97만5천원 **발렌시아가 by 분더샵**, 특별 가공한 스가죽을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난 브라운 컬러 샌들 19만원 **타타미**, 카디란 블루 컬러 주얼 장식과 투박한 고무 아웃솔이 조화를 이루는 샌들 1백만원대 **프라다**, 발에 착감는 편안한 디자인으로 활동성을 높인 스가죽 샌들 23만원 **확포트**, 반짝이는 레드 글러터 스트랩이 눈에 띄는 샌들 83만원 **마르니 by 분더샵**, 미니멀한 실버 스트랩 샌들 67만8천원 **골든구스 by 10 크로스 코모**, 에디터 아예진

**자형시** 02-517-7560 **분더샵** 02-542-8006 **로프트** 02-2635-7729 **프라다** 02-3218-5331 **타타미** 02-431-2562 **무이 로프트** 02-3446-8074 **10 크로스 코모** 02-3018-1010

# active Steps

말랑한 고무 밑창과 두꺼운 스트랩, 투박한 형태로 활동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스포츠 샌들. 어릴 적 물놀이할 때 신었던 기능성 충만한 디자인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모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 걸을 찾아왔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리스트 유영민

www.YAMAHAGOLF.co.kr TEL : 02682-5004



## inpres C's

Stylish Yamaha Golf



# Luxe case

럭셔리 트렁크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알루미늄 코너 가이드 내구성과 디자인 완성도를 극대화한 ZRP-G 트렁크, 53.3X38.1X21.5cm, 69만원 **제로 할리버튼**, 시원한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실사 디스크, 55X40X20cm, 94만원 **리모와**, 360도 회전하는 바퀴, 5단계 조절 손잡이로 기능성을 부각한 다이에 제피르70, 73.5X45.3X28.8cm, 9백50만원대 **루이 비통**, 외부 충격에 강한 CURV를 사용해 견고함을 자랑하는 파이 어라이트, 55X40X20cm, 64만원 **벨사니트**, 천연 재생섬유를 사용해 방수와 방오에 뛰어난 PVC 트렁크, 54X39X22cm, 61만원 **브릭스**, 비서킷스 패턴 가죽이 돋보이는 가죽 트렁크, 46X35X20cm, 1백35만원 **MCM**, 진보된 사이즈 확장 시스템을 갖춘 고품질 알파2 컬렉션, 56X35X23cm, 98만원 **루미**.

손을 자유롭게, 보조 기법 탈락 **출더** by 리모와 이젠도 한 손엔 트렁크, 다른 쪽 손엔 핸드백과 소파백을 들고 여행길에 오르느라 리모와는 트렁크 위쪽에 보조 기법이나 소파백을 걸 수 있게 도와주는 탈락 출더를 더해 짐을 들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과 손의 자유로움을 선사한다.



**제로 할리버튼** 02-310-5390 **리모와** 02-546-3920 **루이 비통** 02-3432-1854 **벨사니트** 02-3288-3770 **브릭스** 02-3461-3200 **MCM** 02-540-1404 **루미** 02-546-8864

물과 오염 물질에도 변함없는, 방수 방염 특수 소재 by 브릭스 면과 비스코스를 결합한 PVC 소재로 제작된 트렁크는 방수 방염에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만약 가방이 오염 되었을 경우 물티슈나 미온 천으로 닦아내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수하물을 안전하게, 방수 지퍼와 TSA 잠금장치 by 벨사니트 오염 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PU 소재로 코팅된 방수 지퍼와 TSA(Travel Sentry Administration) 인증 잠금장치는 미국 입국 수하물 검사 시 별도의 마스터키를 사용해 트렁크의 채소를 예방할 수 있다.



뛰어난 충격 완화 기능, 알루미늄 코너 가이드 **제로 할리버튼** 1969년 아폴로 11호 가 달 표면의 돌과 모래 운반에 사용한 기법으로 시지한 제로 할리버튼의 트렁크, 특히 파손에 취약한 모서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알루미늄 코너 가이드는 내구성과 디자인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흔들림 없이 규모 있는 **안전 수납공간**, 내부 포켓 by MCM 작은 액세서리부터 신발, 옷가지 소지품이 많은 여행객에게 **안전 수납공간**도 배울 수 없다. 알차게 구성된 내부 포켓으로 옷을 구김 없이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지품을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내부 수납공간을 더욱 넓게, 레버락 확장 시스템 by 루미 짐이 많아 트렁크가 닫히지 않는 것만큼 난감한 일은 없다. 루미는 트렁크 내부에 장착한 스프링 레버락 당가면 두 단계에 걸쳐 내부 공간을 최대 2.5인치까지 편리하게 확장할 수 있는 레버락을 적용했다.



**무거운 짐도 쉽고 가볍게, 360도 회전 바퀴 by 루이 비통** 360도로 부드럽게 회전하는 4개의 바퀴는 무거운 짐을 넣었을 때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디터 권유작



## 당신만의 여유와 품격, 바디프렌드

한여름의 활기도, 여름밤의 낭만도 깨어있는 몸과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바디프렌드의 독보적인 기술이 찾아낸 가장 완벽한 당신만의 휴식을 경험하세요.

팬텀  
월 119,500원 (39개월 약정)

www.bodyfriend.co.kr



전국 어디서나 1600-2225

NAVER 바디프렌드

BODYFRIEND

- 이이로보**  
월 49,500원 (39개월 약정)
- 이이로보S**  
월 54,500원 (39개월 약정)
- 유티머스**  
월 69,500원 (39개월 약정)
- 프레지던트**  
월 79,500원 (39개월 약정)
- 팬텀**  
월 119,500원 (39개월 약정)

(주)바디프렌드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39 (역삼동, 바디프렌드타워) | 대표전화 02-3448-8980 | 팩스 02-3448-8883 | 관공서, 기업체, 학교, 병원 등 대량 주문 070-4366-3790  
서울 입구점 02-3448-4789 서초점 02-3487-4739 강변테크노마트점 02-455-8980 노원점 02-3392-5222 동대문점 02-764-2006 목동점 02-6925-6388 송파점 02-448-2225 신도림테크노마트점 02-864-4008 신촌점 02-719-8980  
용산점 02-2012-2140 | 인천 남동점 032-429-5262 부평점 032-518-8980 | 경기 광고점 031-216-8980 동탄점 031-898-9207 부천점 032-715-5785 분당점 031-715-8985 안양군포점 031-429-8985 일산점 031-904-2433 파주점 031-945-8950  
부산 부산교대점 051-866-8532 덕천점 051-336-9880 사화점 051-294-2030 센텀점 051-784-8981 | 대구 달성점 053-524-8980 수성점 053-746-8981 대구유동단지점 053-384-9309 | 울산 울산점 052-267-0760 | 대전 대전점 042-822-6273  
광주 광주금호월드점 062-350-8066 천안점 062-417-8980 | 충청 천안아산점 041-553-8980 청주점 043-236-8280 | 전라 순천점 061-721-2286 전주점 063-237-5315 | 경상 창원점 055-297-8980 포항점 054-279-9162 | 강원 춘천점 033-254-8980 | 제주 제주점 064-747-8980

팬더드 까르띠에 컬렉션 네크리스와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링과 트리니티  
루반 웨딩 밴드 모두 까르띠에, 화이트  
라운드 티셔츠와 화이트 진 팬츠  
모두 레그&본 by 비이커.

# Now is good

숨소리마저 싱그러울 듯한 그녀, 여배우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삶의 가치를 정립한 이영애.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맑고 향기로운 순간.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옐로 골드 팬더드 까르띠에 컬렉션  
롱 네크리스와 링, 우아한 디자인의 발롱  
볼랑 드 까르띠에 워치 모두 까르띠에,  
네이버 라운드 티셔츠와 진 팬츠  
모두 레그&본 by 비이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파인 스톤을  
정교하게 세팅한 팬더드 카르띠에  
하이 주얼리 이어링, 브레이슬릿, 링,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카르띠에  
다이아몬드 링 모두 카르띠에,  
시크한 스트라이프 셔츠 르베이지,  
화이트 진 팬츠 레그&본 바이커.



볼륨감 있는 팬더드 카르띠에 하이 주얼리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팬더드 카르띠에  
리커르다 링 모두 카르띠에,  
빈티지한 티셔츠 띠어리,  
팬츠 레그&본 바이커.





갈게 놓아뜨린 팬더드 카르띠에 컬렉션 중 팬더트 네크리스, 스티드 이어링, 블랙 세틴 소재의 브레이슬릿, 오른손 검지의 볼드한 팬더드 카르띠에 라이 주얼리 링 모두 **카르띠에**, 실카한 질감의 블랙 슬리브리스 정모스트 띠어리,



독특한 디자인의 팬더드 카르띠에 하이 주얼리 이어링, 오른손 검지의 팬더드 카르띠에 라카르다 링, 팬더드 모티브 배젤 디자인의 팔린드 카르띠에 워치 모두 **카르띠에**, 반티지한 티셔츠 띠어리, 팬츠 **레그&본** by 비이커,





그런 에메랄드를 사랑한 팬더 드 카르띠에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팬더 드 카르띠에 컬렉션 이어링, 브레이슬릿, 오른쪽 손목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의 러브 브레이슬릿 모두 **카르띠에**, 데님 질감의 라센 슬리브리스톱과 팬츠 모두 **띠아리**.



블랙 다이아몬드 유니크한 프로모나드 핀 팬더 워치, 오른쪽 손목에 착용한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팬더 드 카르띠에 컬렉션 옐로 골드 이어링과 링 모두 **카르띠에**, 서머 코튼 니트 폴오버 **띠아리**, 화이트 진 팬츠 **레그&본 by 비이커**.  
문의 **카르띠에** 1566-727  
헤어 **조영재**  
메이크업 **이지영**  
스타일리스트&비주얼 디렉터 **이선희**

# an evening of Surprises

스위스 워치 브랜드 오메가와 오랜 시간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가 상하이의 시크릿 가든에서 조우했다. 오메가와 조지 클루니의 특별하고 따뜻한 후원이 감동으로 다가온 그 밤은 그 어떤 때보다 밝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만했다.



1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장하는 조지 클루니. 세계적인 배우다운 여유와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오메가의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오메가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2 지난 5월, 상하이 Le Jardin Secret에 특별히 세운 오메가 행사장. 투명 천으로 된 지붕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흥겨운 카바레와 음악이 어우러진 특별한 퍼포먼스가 게스트를 환영했으며 가운데는 아쿠아테라 시계의 다이얼을 연상시키는 세로선 디자인의 구조물들이 세워졌다. 상하이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장 모습. 3 시종일관 유려하고 따뜻한 매너를 보여준 조지 클루니. 청상꽃무늬를 써 내리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4 리샤르 보트의 강판을 연상케 하는 오메가 시시미터 아쿠아테라 컬렉션. 5 원상적인 분위기를 지원하는 상하이의 야경을 배경으로 선 조지 클루니. 오메가의 홍보대사 역할은 물론 오메가가 후원하는 시간 장에 맞춰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2

## Le Jardin Secret

지난 5월, 상하이 Le Jardin Secret(혹은 The Secret Garden)에 특별히 세운 오메가 행사장은 새로운 아쿠아테라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위 없이 완벽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화려한 오메가 타임피스뿐만 아니라 많은 게스트들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게스트들은 투명 천으로 된 지붕을 통해 밤하늘의 많은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가운데는 아쿠아테라 시계의 다이얼을 연상시키는 세로선 디자인의 구조물들이 세워졌다. 2007년부터 오메가의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동해온 조지 클루니는 영화 산업에서 가장 찬사받는 인물 중 하나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어떤 배우보다 많은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배우다. 뜨거운 환영과 함께 무대에 오른 조지 클루니는 관객들에게 오메가와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아버지는 수년간 오메가를 착용했습니다. 내가 브랜드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알려드려야 아버지는 다락에서 자신의 오메가 시계를 찾아 태엽을 감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시계를 오메가에 전달했고, 오메가는 시계를 수리해주어 아버지 생전 때 다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와 저는 정말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어서 오메가 사장 스테판 우르트는 짧은 환영 인사말이 끝난 후, 조영이 어두워지고 짙지만 강렬한 영상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는 오메가가 후원하는, 전 세계를 돌며 활동하는 오르비스 인터내셔널의 놀라운 업적을 담은 영상이었다. 전 세계 외진 곳까지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하늘을 나는 안과(Flying Eye Hospital)를 소개하는 영상이 끝난 후, 오르비스의 CEO 제니 아우리언(Jenny Hourihan)이 1982년 조직된 이후 그녀의 팀이 수행한 시간 장에 대해 발표했다. 그 직후 조지 클루니는 "우리는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며,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제 니가 오르비스에서 하는 일, 그리고 오메가와 같은 기업이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돌보기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드와 함께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뜻깊은 일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다리가 끝난 후, 오르비스를 위해 일하는 안과 의사 하이롱 카이(Hairong Cai)가 중국 어린이 2명에게 제공한 의료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조지 클루니의 에스콰르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와 관객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다. 조지 클루니는 그가 착용했던 오메가 드빌 아워비전 에 뉴얼 캘린더(OMEGA De Ville Hour Vision Annual Calendar) 스트랩과 워치 박스에 사인을 했다. 한 달 전부터 행사장에 전시된 이 시계는, 중국 내 6개의 오메가 워치쇼에 전시되며 1년 뒤 옥션을 통해 판매되어 오르비스 기금으로 모금되고, 뜻깊은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메가 사장 스테판 우르트는 "조지 클루니와 같은 분과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오메가를 자신의 가슴속에 소중히 담아두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브랜드와 조지 클루니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행사는 유명 프랑스 여가수 오웬(Owlie)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 오르비스 인터내셔널과 하늘을 나는 안과 병원

1982년 설립된 오르비스는 88개국에서 해당 지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 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의료 장비와 최첨단 의학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을 살림 위기에서 구해냈다. 오르비스의 후원 을 통해 2천여만명 명이 이상이 치료받았으며, 25만 명이 넘는 안과 전문의가 전문 의료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전 세계 유일의 하늘을 나는 안과 병원에는 전 세계에 의술을 펼칠 오르비스의 혁신적인 안과 전문의와 비행사가 있다. 현지 의사와 간호사, 테크니션은 오르비스팀과 함께 협업하며 비행기 안 수술실, 레이저실, 실습실, 그리고 회복실에서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시력 복구나 보존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48개 최선진 기술 교실에서는 의사들이 여러 강의, 토론을 벌이며 하늘을 나는 안과에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오메가와 오르비스 인터내셔널의 파트너십을 축하하며 특별한 타임피스, 즉 드빌 아워비전 블루, 드빌 아워비전 애플워치 블루,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스타의 두 가지 시시미터를 선보였다. 오메가는 오르비스 인터내셔널과 하늘을 나는 안과에 오메가의 눈부신 타임피스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계 애호가와 오메가를 사랑하는 고객들이 예방 가능한 실명을 퇴치하는 인도 주의적인 단체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오메가와 지속된 파트너십에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언급한 오르비스 CEO 제니 아우리언은 "우리는 또 다른 스페셜한 타임피스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며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예방 가능한 실명 퇴치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입니다. 오메가의 후원으로 오르비스는 더 많은 사람을 치료할 것이며, 전 세계 시력 장애인과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덧붙였다.



**The Sophisticated OMEGA Constellation Star**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스타 27mm는 선 브러시 처리한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18K 화이트 골드 핸드에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를 더했다. 오메가의 독점 코-엑스텔 칼리버 8520을 장착했으며 이 셀프워딩 기계식 무브먼트는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오르비스 인터내셔널과 하늘을 나는 안과 비행기로 전 세계를 방문해 진행되는 김명 깊은 활동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The Elegant OMEGA De Ville Hour Vision Blue**  
클래식한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기계식 워치메이킹에 혁명을 일으킨 오메가 코-엑스텔 칼리버 8500을 탑재했다. 10bar(100metres/330feet) 방수 가능하며 오메가 드빌 아워비전 블루는 블랙 레더 스트랩과 함께 선보인다. 또 최근 드빌 아워비전 패밀리에 추가된 애플워치 캘린더 에디션에는 코-엑스텔 칼리버 8601을 적용했다. 날짜는 1년에 한 번 3월 1일에 수동으로 조정된다. 미친가치로 3시 방향에 달과 날짜 창이 위치한다.



3



# L'Odyssée de jewel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와 한국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여배우 이영애가 홍콩에서 조우했다. 하이 주얼리와 단아한 기품을 갖춘 이영애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상상의 여정.

## 까르띠에와 이영애의 만남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가 전통 의상인 한복을 드레스 대신 입고 세계적인 무대에 선다면 어떨까. 지난 4월 한국의 미와 한식을 알리고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오디세이 드 까르띠에 컬렉션(L'Odyssée de Cartier Collection)> 하이 주얼리 전시회에 참석한 여배우 이영애. 전 세계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아름다운 여배우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코닉이 된 이영애에게 더욱더 주목한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 때문이었다. 국제적인 행사에 여배우가 한복을 입고 참석한 예가 많지 않았기에 여배우 이영애의 모습이 더욱 눈길을 끈 것. 까르띠에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 디자이너 한은희의 한복을 입은 이영애는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피부가 살짝 비치는 여성스러운 한복과 함께 연출한 보석은 옥이나 전통적인 장신구가 아닌 바로 까르띠에의 다이아몬드 주얼리. 동서양의 가치가 만나 중국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영애의 연출이 빛을 발한 이번 행사는, <대장금>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여배우의 한국 알리기가 한국적인 것을 넘어선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더욱 극찬받았다.

## 상상 여행, 오디세이 드 까르띠에 컬렉션

이영애가 참석한 홍콩 전시에서 선보인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하이 주얼리를 통해 상상 속 여행을 떠난다는 테마의 '오디세이 드 까르띠에 컬렉션'. '스타일과 함께 떠나는 여행(parcours du style)'을 모토로 1백6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의 창조적 유산, 문화, 경험, 기술을 자랑하는 까르띠에가 내면의 욕망과 생명력, 과감한 호기심에 이끌려 떠나는 여행을 통해 선보이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아프리카와 까르띠에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도시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까르띠에 대중이 전통적으로 영감을 얻은 대상인 동양적 디자인, 인도, 중국, 오지드, 팬데는 여전히 등장하지만 생각지 못한 신선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시대가 변하면서 주얼리 브랜드로서의 시가지 직접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완성하는 주얼러들의 하이 주얼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얼리의 가치를 넘어 예술품으로서 주얼리를 완성하는 까르띠에에는 풍경과 스타일에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고, 색다른 디테일을 더해 지금까지 까르띠에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했다. 오디세이 드 까르띠에 컬렉션의 전시 공간에는 주얼리 제작에 영감을 받은 대상 중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비롯해 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아자수, 이집트의 모티브 등 다양한 콘셉트와 그에 따른 컬렉션을 함께 연출해 전시 효과를 극대화했다. 하이 주얼리를 통해 미지의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묘사하는 까르띠에의 주얼리를 만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열린 창조의 길, 신선한 영감을 자극하는 여행이다. 주얼리 브랜드만이 도전할 수 있는 과감한 양식,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스타일과 예술적 가치는 눈이 부실 정도다. 정제된 디테일이 모던하게 어우러진 드라마틱한 결과물,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환상적인 이 주얼리가 까르띠에의 새로운 유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문의 1566-7277 에디션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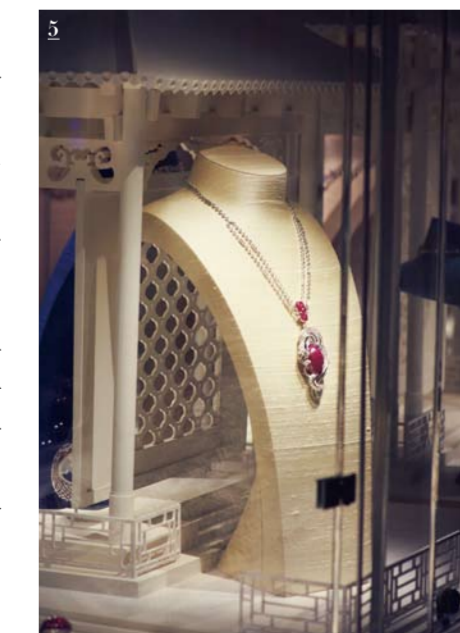


2



4

1 전시장에서 포즈를 취한 이영애. 이영애는 까르띠에와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맺고 있다. 2, 3, 4, 5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오디세이 드 까르띠에 컬렉션. 유색석의 절묘한 조화, 과감하고 구조적인 디자인에 까르띠에만의 대담하고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담았다. 다양한 장소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루어진 오리가 느껴진다. 6 우아한 자태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이영애. 한복에 까르띠에의 주얼리를 매치하는 과감한 시도도 명사들의 극찬을 받았다.



5

6



# time Writer

몽블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품이 느껴지는 우아함이다. 유려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펜촉의 움직임, 스위스 쥐라 산맥의 기상을 담은 클래식한 워치까지. 지난 5월 개최한 몽블랑의 <SIHH Comes to You>에서 만난 아름다운 몽블랑의 히스토리.

## 최고의 가치, 몽블랑

지금 가장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 몽블랑. 브랜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니멀한 별 형태의 화이트 스타 엠블럼.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의 눈 덮인 정상에서 영감을 받은 이 순수한 화이트 컬러의 로고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품질과 유럽 럭셔리 브랜드의 자부심을 상징한다. 1백 년 전 독일 함부르크의 펠기구 매뉴팩처에서 시작된 브랜드는 스위스 워치메이킹 매뉴팩처와 피렌체의 가죽 제품 공장, 파리의 디자인 하우스까지,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장인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몽블랑의 펜과 가죽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물 아이템으로 손꼽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몽블랑이 힘을 쏟고 있는 워치메이킹 분야다.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심장, 쥐라 산맥의 중심부 르 로클에 위치한 몽블랑 매뉴팩처는 몽블랑이 처음 설립되던 해인 1906년 지은 저택을 복원한 것이다. 몽블랑의 워치 공방은 스위스 워치메이킹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타임피스를 제작한다.

## 만년설의 기운을 손목으로, 몽블랑 타임피스

몽블랑은 워치메이킹에 대한 브랜드의 노력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새로운 시계 컬렉션을 롯데백화점 에비뉴엘과 잠실점에서 대거 선보였다. 올해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SIHH(국제고급시계박람회)에서 선보인 신제품을 공수해 <SIHH Comes to You>라는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한 것. 그중 가장 눈길을 끈 제품은 변치 않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닌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헤리티지 퍼페추얼 캘린더. 정확한 날짜와 윤년까지 완벽하게 표기하는 이 그랑 컴플리케이션 워치는 2100년까지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시계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물론 기계식 워치의 특성상 오랫동안 착용하지 않아 날짜가 멈추어져 있다면 케이스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눌러 현재의 날짜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편리함이 더한 모던 워치다. 같은 컬렉션 중 마이스터스틱 헤리티지 펠스그래프는 다이얼의 가장자리를 따라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새겨 독특한 기능을 갖췄다. 이 펠스미터 눈금을 통해 의사들이 1분 내내 맥박을 측정할 필요 없이 30회의 맥박을 측정해 분당 맥박 수를 읽을 수 있다. 1923년 처음 탑재한 미네르바 칼리버 13.20을 활용한다는 것도 몽블랑의 시계 역

사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페이스가 아름다운 몽블랑 오마주 투 니콜라스 워치 역시 이번 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작. 1821년 최초로 특허를 받은 니콜라스 워치의 크로노그래프는 몽블랑 매뉴팩처 무브먼트의 특별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프랑스 공정의 워치메이커였던 니콜라스 워치가 경마에서 각각의 말과 경주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이 구조를 발명해, 1822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세계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발명가로 인정받아 특허권을 받은 바 있다. 이 클래식한 시계를 재해석해 탄생시킨 2014년 버전은 헨스 스타일과 디테일을 충실하게 재현한 데다 하이브리드 세라믹과 같은 신소재를 적용해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만년필과 가죽 아이템을 넘어 장인 정신을 담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 정진하고 있는 몽블랑의 현명한 발걸음은 전통 깊은 브랜드 위치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3440-5734 에디터 배민진

1 롯데백화점 소공동 에비뉴엘 2층에 위치한 몽블랑 부티크. 2 1821년 탄생한 워치 위치를 재해석한 오마주 투 니콜라스 워치. 3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헤리티지 퍼페추얼 캘린더. 4 에비뉴엘 1층에 전시한 몽블랑의 워치 컬렉션. 5 마이스터스틱 헤리티지 컬렉션 펠스그래프의 무브먼트.



# special One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얼리를 소유하고 싶은 이들을 만족시키는 특별 주문 제작 시스템. 거기에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하이 퀄리티의 보석은 일본을 대표하는 컨템퍼러리 오토쿠튀르 주얼리 '루시'가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이유이자 그들만이 지닌 특별함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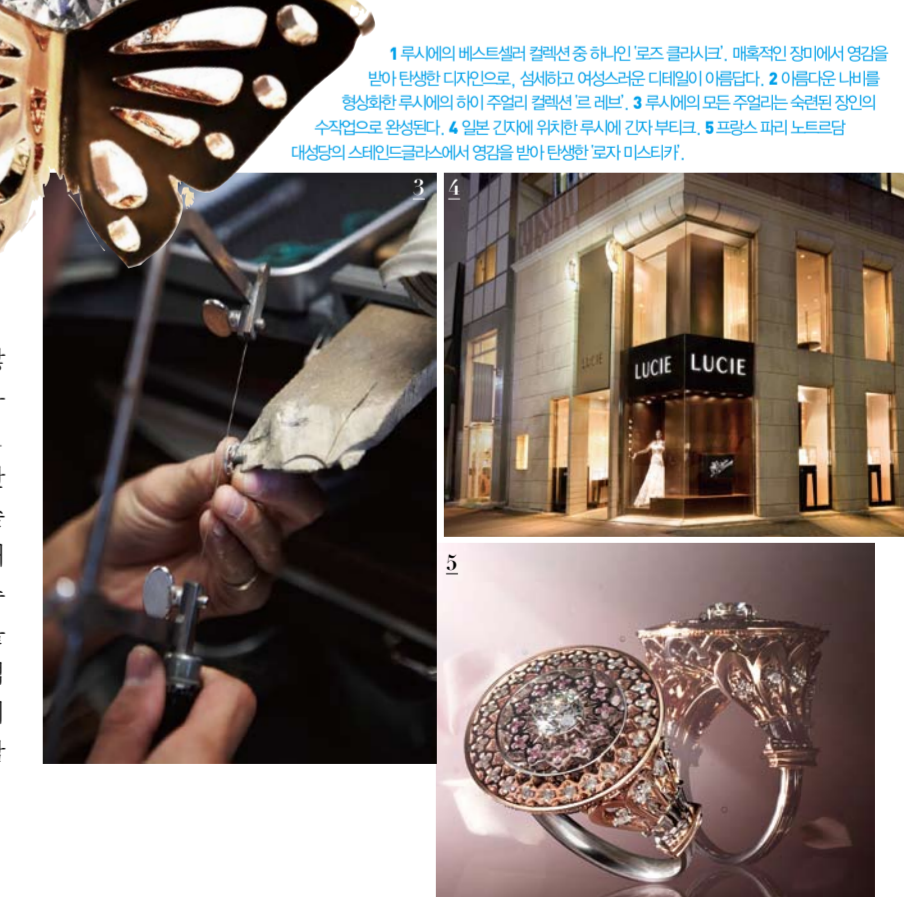
##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주얼리, 루시에

일본을 대표하는 주얼리 장인이자 디자이너 아오키 도시카즈(Aoki Toshikazu)가 설립한 일본의 컨템퍼러리 오토쿠튀르 주얼리 브랜드 '루시에(LUCIE)'.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자립심이 강한 영국의 여성 도예가 루시 리(Lucie Lee)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루시에는 자신의 가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여성을 위한 '오토쿠튀르 주얼리'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 입지를 굳힌 하이 주얼리 브랜드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세세한 곳까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을 브랜드 모토로 하며, 주얼리 공정은 100% 장인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과대하게 제품을 포장하고 광고하지는 않지만, 안목 높은 고객이라면 언젠가 루시에의 아름다운 주얼리를 알아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제품을 만드는 것 또한 브랜드가 오랜 세월 고수해온 철학. 이러한 신념으로 완성한 루시에만의 유니크하고 섬세한 주얼리는 한번 착용해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컬렉션은 매혹적인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로즈 클라시크'와 진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나석을 세팅한 '샹드 플레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로자 미스터리', 밤하늘의 별을 형상화한 '예루살렘'. 루시에의 모든 주얼리에는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G.I.A 감정을 거친 다이아몬드만을 세팅하는데, 동급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만을 엄선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G.I.A 감정서가 첨부되지 않는 0.2캐럿 이하의 다이아몬드까지도 완벽에 가까운 엄격한 검품 시스템을 통해 품질을 보증한다.

## 단 한 사람을 위한 오토쿠튀르 주얼리

오직 나만을 위한 주얼리를 갖는다는 것. 이는 그저 상상 속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문 제작 서비스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오토쿠튀르 주얼리는 매우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전문 인력과 제작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1:1 맞춤 제작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루시에는 다르다.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이 디자이너일 만큼 디자인 인력 양상에 힘을 쏟는 루시에는 소수만을 위한 오토쿠튀르 주얼리 시장의 문을 대중에게 활짝 열었다. 이는 대중과 가까운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브랜드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루시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오토쿠튀르란 고객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사연을 담아 브랜드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 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얼리를 꿈꾸는 여성을 위해 정직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희소성 있는 디자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고안한 루시에만의 특별함이다. 오토쿠튀르 시스템은 고객의 특별한 사연과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이 디자인 스케치에서부터 직접 참

여한다. 디자인을 시작으로 소재, 스톤 선택 등 제작 과정 역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객은 기존의 디자인을 변형해 다양한 선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는 여타 브랜드와 달리 루시에는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따라 기존 제품에서 소재, 질감, 두께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소재는 하드 플래티넘, 플래티넘 골드, 동양인의 피부에 잘 어울리게 불렌딩한 핑크 골드, 옐로 골드 등 네 가지가 있다. 질감 역시 차분한 느낌의 매트, 광택감 나는 글로시, 사프한 질감의 헤어 라인, 매트와 글로시가 조화를 이룬 테크니컬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손가락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 반지의 폭을 조절할 수 있기에 내 손에 꼭 맞는 반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것도 루시에만의 메리트다. 루시에만의 품격이 느껴지는 개성 있는 주얼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경기점, 현대백화점 본점·목동점·대구점,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2-6914 에디터 권유진



1 루시에의 베스트셀러 컬렉션 중 하나인 '로즈 클라시크'. 매혹적인 장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디자인으로,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아름답다. 2 아름다운 나비를 형상화한 루시에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로즈'. 3 루시에의 모든 주얼리는 숙련된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된다. 4 일본 긴자에 위치한 루시에 긴자 부티크. 5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로자 미스터리'.

# Perfect eyew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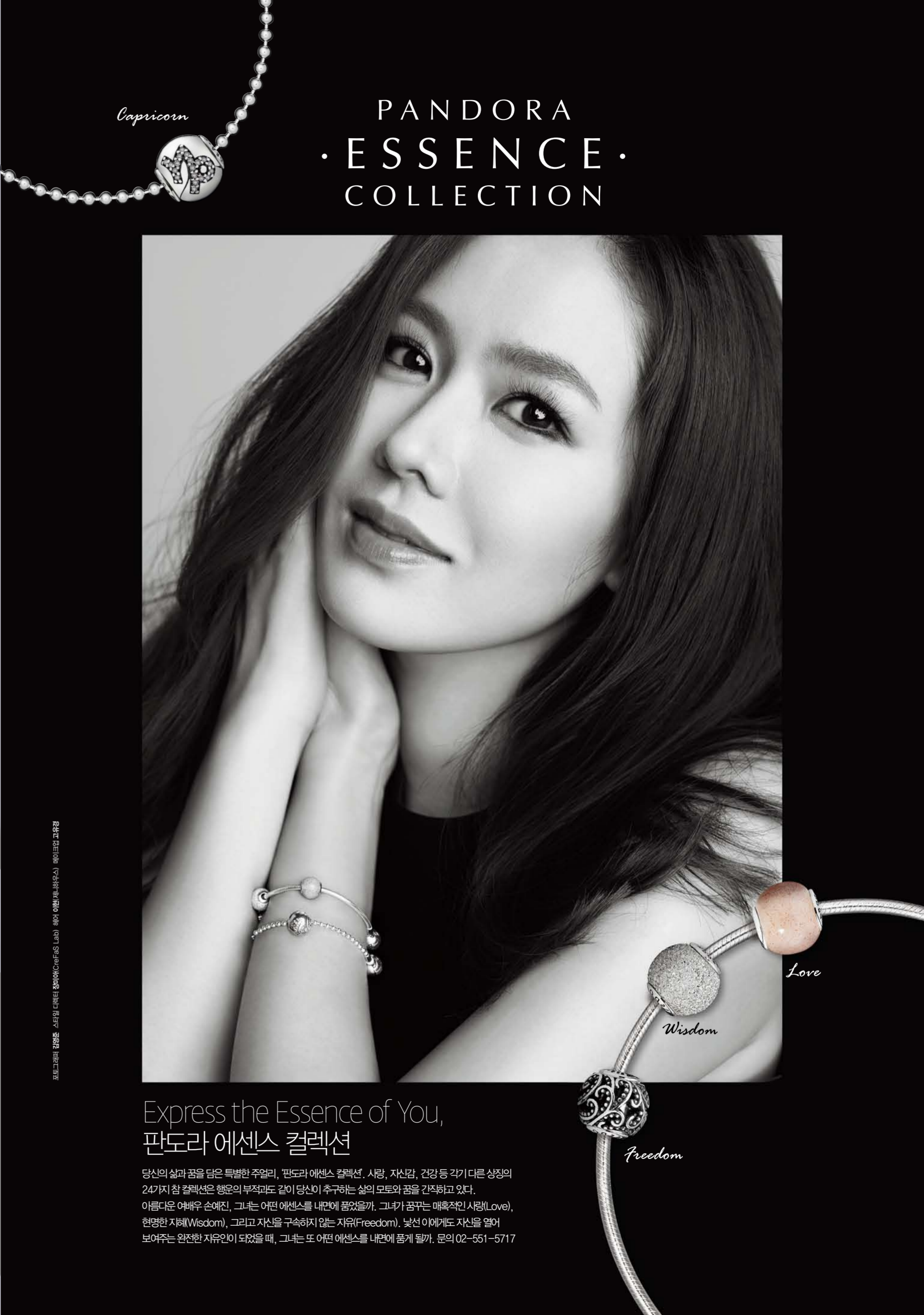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  
깃털같이 가벼운 착용감과  
강력한 내구성, 그리고 선명하고 편안한  
시야를 선사하는 최고급 렌즈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레이벤 라이트 포스 컬렉션이  
이번 시즌 아이웨어 시장에 혁명을  
일으킨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RB4207 col. 6097/73  
RB7018 col. 5205  
RB7018 col. 5251  
RB4207 col. 6015/8G  
RB4207 col. 6099/88  
모두 레이벤 라이트 포스 컬렉션  
by 루스타카 코리아.

패션 제품이려면 해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신봉적인 인기를 끈 아이웨어 레이벤. 특유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로 단순한 아이웨어의 개념을 넘어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레이벤의 신글라스는 1937년 비행기 조종사들을 위해 개발된 제품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는 하늘 위에서 조종사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렌즈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레이벤을 명품 아이웨어의 위치로 끌어올린 브랜드의 상징이기도 하다. 최고 수준의 테크놀로지로 완성한 레이벤의 렌즈는 카메라, 현미경에 사용하는 옵티컬 글라스를 사용해 선명하고 깨끗한 시야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천연 미네랄을 매우 높은 온도에서 혼합해 렌즈의 안정성과 균질성을 확보하고, 다이아몬드 가공으로 왜곡을 없애 시야의 변질 현상과 눈의 피로를 예방하는 것이 장점. 더불어 100% UV 차단 효과로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눈을 보호할 수 있다. 레이벤의 렌즈가 더욱 특별한 것은 블루 라이트 흡수율이 높아 편안한 시야를 제공한다는 것. 블루 라이트는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하는 태양,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의 광선으로, 시야를 흐리게 하며 눈을 피로하고 건조하게 만드는 주요 인자이다. 편광 렌즈를 사용한다는 것 역시 레이벤의 아이웨어가 하이 퀄리티 제품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빛을 수평면에 반사시켜 눈부심 현상을 막아준다. 더불어 레이벤의 모든 편광 렌즈에는 P 마크를 새겨 레이벤 렌즈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

## 내 과 스

아이웨어를 선택할 때 렌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이다. 얼굴형에 맞지 않는 무거운 안경을 쓰면 temples에 콧등, 옆 얼굴이 눌러 통증을 느끼기 십상. 안경을 벗었을 때 남는 붉은 자국은 또 여파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벤은 새로운 소재인 '라이트 포스'에 주목했다. 라이트 포스는 PK001이라는 고분자량 화합물로 만든 고강도 소재.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강해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되지 않으며, 메탈만큼 강력해 인공 장기와 우주선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레이벤 라이트 포스 컬렉션은 내구성이 높아 오랜 시간 변형 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 어느 얼굴형이나 자연스럽게 피팅되어 temples에 얼굴이 눌리지 않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착용한 것을 잊을 만큼 가볍고 슬림해 편안함을 선사한다. 그렇다고 기능성만 강조한 제품은 결코 아니다.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에 물론, 그린, 블루, 옐로우 등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비버드한 컬러부터 블랙, 그레이, 브라운 등 차분하고 스타일리시한 컬러까지 다양하게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풀 프론트와 temples에 모두 라이트 포스 소재를 사용했으며, 무광택으로 마감 처리해 모던하고 세련된 무드를 기댈 수 있다. 또 temples 옆 선에 부착한 메탈 로고 플라크는 라이트 포스 컬렉션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다.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미니멀한 세이프의 안경과 신글라스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한다. 문의 02-501-4436 에디터 권유진



Capricorn

PANDORA  
ESSENCE  
COLLECTION

## Express the Essence of You, 판도라 에센스 컬렉션

당신의 삶과 꿈을 담은 특별한 주얼리, 판도라 에센스 컬렉션. 사랑, 자신감, 건강 등 각기 다른 상징의 24가지 참 컬렉션은 행운의 부적과도 같이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토와 꿈을 간직하고 있다. 이름다운 여배우 손예진, 그녀는 어떤 에센스를 내면에 품었을까. 그녀가 꿈꾸는 매력적인 사랑(Love), 현명한 지혜(Wisdom), 그리고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자유(Freedom), 빛선에게도 자신을 열어 보여주는 원천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녀는 또 어떤 에센스를 내면에 품게 될까. 문의 02-551-5717

권유진 에디터 (주요 이미지: 권유진) (주요 이미지: 권유진) (주요 이미지: 권유진) (주요 이미지: 권유진)

# Lift Up your face

무너진 얼굴 라인을 끌어올려 탄력을 더해주는 리프팅 화장품은 많다. 하지만 15년간 세대를 거듭하며 키투어링 제품을 선보여온 브랜드는 클라란스가 유일하다.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4세대 '토탈 V 에센스'는 아시아 여성들의 고질적인 고민인 부기와 지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해 가름한 얼굴선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아시아 넘버원 키투어링 세럼, V 에센스

턱 밑에 두툼하게 자리 잡은 볼도그 살, 계속해서 치지는 얼굴 라인, 일찍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턱선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가? 서양인에 비해 지방 주머니가 더 쉽게 축적되는 아시아 여성은 몽푹한 U라인을 이루는 무거운 얼굴선을 큰 고민 중 하나로 꼽는다. 여성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클라란스는 15년 전 페이스 라인 때문에 괴롭다는 한 일본 여성의 고민을 계기로 최초의 V 에센스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개발한 만큼 아시아 여성이 얼굴 라인 때문에 겪는 고질적인 고민을 누구보다 잘 간파했다고 할 수 있다. 출시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분마다 1개씩 팔리고 있다는 기록이 검증된 제품력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1999년을 시작으로 2005년 2세대, 그로부터 5년 후에 출시된 3세대 제품을 거쳐 올해 7월, 완벽한 페이스 키투어링을 실현하는 4세대 '토탈 V 에센스'가 탄생했다. V 에센스는 물론 엑스트라-퍼밍 크림, 바디 리프팅 컨트리올 슬리밍 제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제품을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선보이는 클라란스의 행보는 제품에 대한 믿음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엔 완성한 4세대 '토탈 V 에센스'는 동글고 넓적한 얼굴선을 가름하게 정돈하는 것을 넘어 현대 아시아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까지 고려한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운동은 하지 않는 현대 여성의 생활 습관은 얼굴 형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이러한 생활 습관은 과도한 당분을 축적해 피부의 탄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요, 불필요한 지방이 곳곳에 자리 잡아 몽푹한 라인을 만들게 한다는 얘기도.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여성의 실제 얼굴형을 다각도로 분석한 수치와 통계로 새로운 '토탈 V 키투어링 파워'를 완성하기 이르렀다.

## 어느 각도에서나 자신 있는 토탈 V 키투어링 파워

그렇다면 새로운 4세대 V 에센스가 기존 제품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얼굴 정면에서 옆선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얼굴 라인을 컨트리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세 가지 주요 성분과 기능을 집약했다. 먼저 과라나 추출물이 얼굴선을 더욱 또렷하게 정리해주는 V 파워, 제롬벳 진저 추출물로 얼굴의 부기를 덜어주고 고여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수분 파워와 감 추출물이 당화 반응으로 늘어진 탄력을 끌어올리는 리프팅 파워가 강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것. 지난 3세대 제품에서 주요하게 작용한 지방을 다스리는 기능은 과라나 추출물과 바가리

스 추출물에 카페인을 더해 더욱 진화된 '토탈 V 키투어링 파워'를 완성했다. 출시를 앞둔 3월 도쿄에서 미리 만나본 '토탈 V 에센스'는 발립성이 높여 텍스처가 쫄쫄해지고 흡수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 리프팅 기능에 수분을 더해 한층 더 축적했으며, 식물 성분이 내는 은은한 향은 여전히 기분 좋은 사용감을 선사했다. 새로운 V 에센스를 오랫동안 기다린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클라란스 연구팀 소장 에릭 구리스 박사는 신제품 론칭 인터뷰에서 "연구소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포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식물 성분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실험을 거친 후 수백 번의 포몰러 테스트와 임상 실험을 진행하기에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요. 아시아 여성이 원하는 또렷한 얼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에 부응하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이 아시아 여성을 사로잡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 클라란스 파리 인스티튜트에서 비롯된 브랜드만의 훌륭한 자산, 오토 리프팅 마사지법을 곁들일 것을 당부했다. 모든 동작은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다음 머리를 숙이고 두 손바닥에 머리의 무게를 싣는 것이 포인트. 이마부터 시작해 눈 전체를 감싸면서 살짝 눌러준 다음 코를 사이에 두고 양손에 두 뺨을 얹어 볼에 쌓인 부기를 가라앉힐 것. 손목을 붙이고 턱을 손바닥에 댄 다음 양손을 벌려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귀가 오도록 한 뒤 지긋이 눌러가며 공들여 마사지하면 과도한 수분과 노폐물을 덜어 V 라인을 실현할 수 있다. 문의 080-542-9052 **에디터 이예진**

1,2,3 (왼쪽부터) 제4세대 V 에센스에는 과라나, 제롬벳 진저, 감 추출물 등 엄선된 식물 추출물을 담아 얼굴선을 가름하게 정돈한다. 4 1999년에 선보인 제1세대 키투어링 페이스 리프트.



# energy Boosting

하루 동안 발생하는 체내의 독소 세포 수가 무려 수십억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좋은 화장품을 써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피부 톤이 칙칙하다면 피부 속에 쌓인 독소를 의심해보자. 피부를 정화하고 에너지를 풀어놓아줄 스킨케어의 필수 첫 단계, '다음 원 에센셜'이 그 해답이 되어줄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피부 정화 첫 단계 에너지 부스팅 에센스

요즘 뷰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해독을 일컫는 '디톡스(detox)'다. 해독 주스, 디톡스 식단, 독소 배출 마사지까지,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유행하는 것은 그만큼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독소 케어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디톡스가 필요한 것은 피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피부 속에 자리 잡은 독소 때문에 유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 게다가 유해 요소와 독소가 피부에 매일 축적되면 피부 재생은 물론 피부 본연의 빛도 사라진다. 그 때문에 단순히 피부를 건강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건강하고 생기 가득한 피부로 바꾸기 위해선 피부 속 독소를 정화해 피부의 근본부터 탄탄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피부 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 독소 배출을 도와줄 에센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피부 세포 정화에 대한 20년간의 연구로 이전보다 더욱 특별한 효과를 갖춘 포몰러로 재탄생한 'NEW 원 에센셜'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유해 요소가 피부에 축적되는 것을 막고 피부 본연의 광채를 되살려 주는 가장 근본적인 데일리 에너지이징 에센스다.

## 완벽한 독소 해독 기능의 히비스커스

과거의 원 에센셜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피부 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레드 히비스커스 플라워 에센스가 함유되어 있다는 점. 히비스커스 플라워는 아프리카에서는 해독과 에너지 드링크의 원료로 널리 쓰이는 식물 중 하나다. 다음 사이언스는 이 꽃의 꽃받침이 지닌 놀라운 자연 정화 능력을 발견했으며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세포의 핵인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인 론 단백질의 활동을 자극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로써 피부 속 독소가 정화되고 피부 세포가 제대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효과를 높이고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게 되는 것. 또 피부 속 독소 정화 시스템인 프로테아좀 작용을 촉진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피부의 유해 요소를 제거해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재생 효과를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우윳빛 텍스처는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생물학적인 효능을 코즈메틱적인 효능으로 최적화하기 위한 작업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피부에 산뜻하게 흡수되고 마치 펄 베이스를 바른 듯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한다. 더불어 즉각적인 부스팅 작용을 통해 안색이 촉촉하고 화사하게 개선된다. 50ml 17만5천원. 문의 080-342-9500 **에디터 권유진**





# Cancer charity

여기, 희망이 있다. 세계적인 럭셔리 패션 하우스 랄프 로렌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암 센터 로열 마스덴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여성들을 위해 유방암 연구 설비에 투자하는 일이다. 미국 패션의 정신적 지주에서 세계 여성의 지지자로 거듭난 랄프 로렌의 용기 있는 행보.



1 랄프 로렌이 후원하는 영국 로열 마스덴의 첼시 병원. 2 로열 마스덴 의장인 윌리엄 왕자가 주최한 디너 파티. 3 (왼쪽부터) 랄프 로렌의 부인 리키 로렌, 랄프 로렌, 모델 카린 알렉산더. 4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랄프 로렌의 레드 컬러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 제시카 미치베터와 도보 그레이 드레스를 입은 장쯔이. 5 한국 대표로 자신 파티에 참석한 여배우 고소영. 6 랄프 로렌이 윌리엄 왕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랄프 로렌, 여성들을 유방암에서 자유롭게 하라

미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 랄프 로렌이 또 한 번 자선 행보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암 센터 로열 마스덴(Royal Marsden)과 랄프 로렌이 최신의 유방암 연구 설비에 투자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이다. 유방암은 여성 암 중 31%를 차지할 뿐 아니라, 매년 1백40만 명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46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친한 친구였던 니나 하이드가 유방암으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 것을 목격한 랄프 로렌의 회장 랄프 로렌은 패션 사업이 유방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한 첫 번째 인물이다. 이미 1994년 개인적인 기부와 모금을 통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에 유방암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니나 하이드 센터를 설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미국 패션디자인협회 회장으로서 취임한 1994년에는 유방암 치료를 위한 수백만달러의 기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가 열매를 맺어 에이즈 치료와 예방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랄프 로렌은 "유방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꽤 오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최신 암 치료 기술에서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적 명성의 로열 마스덴과 우리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획기적인 연구 결과는 물론 세계 곳곳의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 로열 마스덴과 랄프 로렌의 의미 깊은 발걸음

랄프 로렌의 새로운 유방암 센터는 영국 로열 마스덴의 첼시 병원에 건립되는데, 로열 마스덴의 첼시 병원 내 최고 수준의 새로운 시설의 설립을 계획 중이다. 로열 마스덴은 암 진단 치료 연구 교육에 초점을 맞춰 세운 세계 최초의 병원으로, 1851년 문을 열었다. 암 연구소 ICR(Institute of Cancer Research)과 파트너십을 맺어 현재는 매년 5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 센터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임상와 연구진이 팀을 이뤄 최신 암 연구 기술과 함께 작업하게 될 랄프 로렌 센터는 암의 조기 진단과 새로운 유방암 치료법 등 유방암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랄프 로렌과 로열 마스덴과의 인연은 처음이 아니다. 이 암 센터는 이미 랄프 로렌의 핑크 포니 재단에서 수년간 지원 받아온 바 있는데, 이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랄프 로렌과의 오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매년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암 연구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오고 있는 로열 마스덴의 CEO 칼리 팔머(Cally Palmer)는 "랄프 로렌의 후원이 로열 마스덴의 선구적인 암 연구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설비와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따뜻한 랄프 로렌의 투자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랄프 로렌은 로열 마스덴의 의장인 윌리엄 왕자가 원저 케슬에서 주최하는 디너 이벤트에 참석해 로열 마스덴의 업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선 디너 행사에는 케이트 블란쳇, 마고 로비, 에마 왓슨, 장쯔이, 케이트 모스 등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랄프 로렌의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에서는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소영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로열 마스덴을 후원하는 랄프 로렌의 용기는 암 환자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암이 없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에 더 의미 깊다. 에디터 배미진

1



# the dynamic Elegance

1834년, 프랑스에서 경마리는 스포츠가 처음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연 유서 깊은 샹티이 경마장. 파리 북쪽에 자리 잡은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마장에는 매년 6월 박진감 넘치면서도 우아한 향연이 펼쳐진다. 1백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 시계 명가 론진(Longines)이 후원하는 승마 경주인 '프리 드 디안 론진(Prix de Diane Longines)'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 매혹적인 현장의 열기를 전한다.



베르사유는 일곱 번이나 방문하게 했으면서 어찌서 이곳엔 단 한 번도 날 데려오지 않았단 말인가. by 리처드 닉슨, 1968

## 녹음 짙은 샹티이를 수놓은 프리드 디안 론진 2014

그건 바로 역동적인 에너지와 고아한 품격을 자랑하는 경마 대회기 있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우아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필리스 경주(fillies' race, 어린 암말 경주인 '프리 드 디안(Prix de Diane)'은 앞서 열리는 자키 클럽(Prix du Jockey-Club) 경기와 더불어 경마 애호가들을 한껏 들뜨게 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3년 전부터 전통 있는 스위스 워치메이커 론진과 짝을 이룬 이 유서 깊은 대회는 올해로 1백65돌을 맞이했다. 공식 타임키퍼로서 경기장 곳곳을 내이비 색상을 바탕으로 한 멋들어진 엠블럼으로 과하지 않게 단정한 론진은 승마 스포츠와 끈끈한 유대를 맺어온 브랜드다. 론진이 기수와 말이 새겨진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한 것이 1878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니 말이다. 프리드 디안 론진 2014 대회가 개최된 6월 15일, 오전만 해도 쌀쌀하다 싶었던 초여름 날씨가 오후에 접어들어 경기가 시작되자, 경주마들이 질주하는 연녹색 잔디밭을 태양이 환히 밝혀주는 따스롭고도 상쾌한 날씨로 변했다. 말과 혼연일체를 이뤄 달리는 기수들의 모습도 흥미롭지만 경쾌한 말발굽 소리를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모자와 드레스로 단정한 여성 관람객들의 모습을 엿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1 파리 근교 샹티이 경마장에서 열린 '프리 드 디안 론진 2014'. 2, 3 론진의 브랜드 홍보대사인 배우 케이트 윈즐릿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4, 5 고전적인 품격을 풍기는 타임피스 컬렉션 '콘퀘스트 클래식'. 30개의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여성용 워치와 역동적인 미가 느껴지는 남성용 워치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6 세련된 기품이 느껴지는 칼럼 힐 크로노그래프. 진한 브라운색 스트랩이 돋보인다.

## 단아한 품격을 부각하는 매력적인 시계 컬렉션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열정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눈에 띄었다. 올해 처음 참가해 행시를 빛낸 론진의 브랜드 엠베서더인 영국 배우 케이트 윈즐릿은 대회 전날 경마장 내 샹티이 말 박물관에서 개최된 '론진 레이디스 어워드 2014'에서 승마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여성 리더에게 직접 시상을 하기도 했다. 론진이 이번 대회를 위해 역점을 둔 '콘퀘스트 클래식 컬렉션(Conquest Classic Collection)' 중 스틸 버전의 여성용 워치가 이들 속에서 덩달아 돋보였다. 3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MOP 다이얼과 시간을 표시하는 인덱스 다이아몬드가 영롱하게 빛나는 이 시계는 단아한 품격과 내밀한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여성의 캐릭터를 부각한다는 인상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짧지만 밀도 있는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케이트 윈즐릿은 "론진이란 브랜드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통과 혁신의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까이 홍보대사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모던함을 품고 있기에 지지한다"면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시간과 함께 전진하는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항상 일과 일상의 삶에서 열정적이면서도 꾸미지 않은 솔직한 힘이 기품을 더해주는 듯한 케이트 윈즐릿은 런던에서 우연히 론진의 민티지 모델(헤리티지 컬렉션)을 발견하고는 그 특유의 오라에 반해 직접 구매한 적이 있고, 이번 여행에도 챙겨 왔으며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진정한 여성용 워치는 그녀의 에피소드는 인간의 삶에 스토리를 부여하는 시계의 매혹을 새삼 흥미하게 했다. 스튜어트 맥클러디의 저서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일부 인용하자면, 심오할 정도로 다차원적인 시간이란 개념이 출중한 기계 메커니즘과 만나 소중한 삶의 순간을 이야기의 형태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계의 미학은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진화를 거듭하더라도 우리에게 삶에 오래도록 정감 있게 스며들 것 같다. 에디터 고성연(샹티이 현지 취재)



# the beauty of 'Modern Korea'



한국인들이 유독 사랑하는 '브라운 스피릿(brown spirits)'의 대표 주자인 스카치위스키. 그중에서도 1994년 시장에 첫선을 보인 지 8년 만에 1억 병이라는 대단한 판매고를 올린 임페리얼(Imperial)은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온 위스키 브랜드일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라는 명성을 지닌 이 상징적인 브랜드가 올해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보인 임페리얼 탄생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한국이 자랑하는 신비로운 청차와 청아한 백자의 매혹적인 색채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물씬 풍기는 특유의 다이아몬드 앵글 커팅이 신선한 조화를 창출해낸 이 한정판 스카치위스키에 주목해보자.

## 탄생 20돌을 맞이한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프랑스의 디자인 철학자 스테판 비얌은 디자인이 자아내는 '경험 효과'를 중시한다고 했다. 단순히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에서 더 나아가 삶의 경험에 좀 더 높은 질을 부여하는 부가가치를 선사한다는 얘기가. 그제 도시의 설치물이든, 디지털 서비스든, 소비재든 말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인 임페리얼은 이런 맥락에서 애주가들의 경험치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존재로 꼽힌다. 부드러운면서도 깊은 맛과 합리적인 가격대뿐만 아니라 세월을 거치면서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은근한 재미를 안겨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1994년 임페리얼 클래식 12로 포문을 열며 국산 프리미엄 위스키의 오라를 당당히 뽐아 온 이 브랜드는 2000년대 초 직사각형의 다소 투박한 병 디자인에서 탈피해 날렵한 곡선미를 보여줬고, 위조 위스키 방지 차원에서 술을 따를 수는 있지만 다시 주입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키퍼 캡(keeper cap)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만화가 이현세, 우리나라 최초의 프리미어 리저인 박지성 선수, 배우 장동건과의 콜라베이션을 통해 다양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이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왔다. 올해로 탄생 20주년을 맞이한 임페리얼은 더욱 특별한 변신을 꾀했다. 최근 임페리얼 보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다이아몬드 앵글 커팅을 한국 전통미를 품은 청차와 백자인 모티브 삼아 재해석해낸 디자인을 선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아한 흰색과 은은한 청자 빛깔을 띤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된 임페리얼 탄생 2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은 산업 디자인계의 구루로 꼽히는 김영세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리얼 탄생 2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은 산업 디자인계의 구루로 꼽히는 김영세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 한국 전통 도자기와 태극의 미를 담은 디자인

"오랜 생각 끝에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가 남긴 예술성을 담기로 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백자가 풍기는 순백의 미와 청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색의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지요. 또 병 옆면에는 각각 '음양과 사패'라는, 태극기에서 빌려온 아름다운 곡선과 직선 문양으로 수를 놓았고요." 다시 말해 이 한정판 위스키의 보틀 디자인은 태극과 사패(간곤감리)의 한국적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냄으로써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인 '모던 코리아(modern korea)'를 구현해낸 결과물이라는 게 김영세 디자이너의 설명이다. 의미를 더하기 위해 병 중심부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표현한 임페리얼 그래픽 모티브에 2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20'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번 임페리얼 탄생 20주년 기념 에디션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맛의 품격도 다르다. '20'이라는 뜻깊은 숫자에 걸맞게 스코틀랜드에서 20년 이상 숙성된 원액만을 엄선하고, 최상의 블렌딩을 거쳐 빛나며 최고급 위스키로서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임페리얼이 걸어온 지난 20년을 기리는 차원에서 페르노리가 코리아(대표 장 마누엘 스프리아)는 지난 6월 김영세 디자이너와 손잡고 1994년의 패전과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다양한 오브제, 당대의 추억을 '돌게' 하는 영상과 음악으로 꾸민 <Then Meets Now>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임페리얼 탄생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마린시티점에서 한정 판매되며 판매가는 11만 원이다. **에디터 고성연**



1,2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이 탄생 20주년을 맞아 청자 및 백자, 그리고 태극의 선을 모티브로 삼은 한정판 에디션을 선보였다. 3 한정판 디자인이 참여한 임페리얼 탄생 2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4 임페리얼이 걸어온 20년을 기리기 위해 최근 서울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5 2013년 다이아몬드 앵글 커팅을 새 옷을 입은 임페리얼 15.

# editor's Pick

휴가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들떠 있는 요즘, 수분이 풍부한 메이크업 제품과 개운하게 씻어내는 클렌징,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등, 뜨거운 여름과 걸맞게 업데이트된 <스타일 조션일보> 기자들의 뷰티 아이템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모레퍼시픽 안티에이징 CC 쿠션 SPF 50+/PA+++** 스테디셀러 쿠션 파운데이션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최신 제품, 촉촉함과 커버력을 개선한 것은 물론 안티에이징 기능까지 담아 기존 에 티올레스포스 라인을 사용했던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탄력 강화에 효과적이고 지속력이 뛰어나다. 15g/22리플 포함 8만7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배민진*

**클리닉스너 론칭 1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모공 속까지 깨끗하고 보드득하게 씻어 내는 진동 클렌징 기기. 1초에 3백 회 진동하는 울파 진동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손으로 하는 클렌징 대비 6배 더 뛰어난 클렌징 효과를 선사한다. 론칭 1주년을 기념해 알록달록한 컬러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출시 예정. 27만 원대. 문의 080-348-0090. *by 에디터 권유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아이즈 투 톱 솔로** 메이크업이 필요한 날에는 어김없이 누드 톤 아이섀도를 선택한다. 얼마 전 만난 이 뉴 페이스는 베이스 색도가 따로 필요 없이 바로 발라도 피부 톤과 겹들지 않고 가루도 거의 날리지 않는다. 1.75g 4만 2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재진*

**보테가 베네아 에센스 아로마티크** 패션 하우스 보테가 베네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마스 미야이가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워터프루프 향수. 0.1ml의 산 베르가모트와 인도네시아산 파슬리 에센스, 타카산 로즈 앵술루프가 가벼우면서도 우아하며 은은한 향기를 선사한다. 보틀 바닥에 브라운 시그니처인 인트리아토 7개의 패턴이 새겨져 있다. 50ml 12만6천원. 문의 02-3438-7681. *by 에디터 배민진*

**모로코오일 아이오닉 세럼** 다발 브러시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반해버렸다.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카디란 롤 덕분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기 더 없이 좋은 브러시다. 3만 원대. 문의 1666-5125. *by 에디터 이재진*

**아이젠버그 유스 엘리트 포 우먼** 2인 1용 보는 젤 베이스. 쫄쫄한 텍스처가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코팅한다. 파운데이션과 1:2 비율로 사용하면 지속력과 광채가 살아난다. 30ml 13만9천원. 문의 070-7713-0819. *by 에디터 이재진*

**비오더م 완미트 모공 마스크** 늘어난 모공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때문에 특히 답고 습한 여름에는 마스크를 잊지 않는다. 모공보다 미세한 알갱이가 피부에 밀착된 각질을 살살 벗겨내고 모공에 공간을 열어준다. 75ml 3만2천원대.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재진*

**입센로랑 르 명 투시 앰플리 파운데이션** 윤광을 표현하는 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파운데이션.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에 섞어서 사용하면 피부가 자연스럽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커버력도 뛰어나고 리퀴드 파운데이션 중 가장 촉촉한 편이다. 30ml 6만7천원대. 문의 080-565-5678. *by 에디터 배민진*

**사블 르 블랑 라이트 리빙링 화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 SPF 36/PA+++** 일명 '복숭아' 메이크업 베이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제품으로, 즉각적으로 보일듯 화사한 복숭아빛 피부가 완성된다.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생리 기간 피부를 연유하고 싶을 때 바르면, 그때마다 피부가 물러보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30ml 6만2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다올 어디트 틴글로우 컬러 리바이버 밤** 눈으로 보기에 투명한 핑크 톤의 재형이지만 입술에 바른면 입술 윤도와 톤에 따라 자연스럽고 예쁜 핑크빛 립이 완성된다. 생기 있는 컬러와 더불어 촉촉한 질감과 은은한 반짝이는 광택감이 매력적인 립밤이다. 3.5g 3만9천원. 문의 02-3438-9537. *by 에디터 권유진*

**베네텠티 데이 리얼 푸쉬-업 라이너** 속눈썹 라인 사이사이를 빈틈없이 채워주는 젤 라이너 펜. 사선 모양의 이류플렉스™ 펜을 정해진 초보자들도 쉽게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다. 특히 그리기 어려운 눈꼬리를 한 번의 터치만으로 날렵하게 그릴 수 있다. 1.4g 3만2천원대. 문의 080-001-2363. *by 에디터 권유진*

**이슬 데오도란트** 늘 풀은 타입의 데오도란트도 고집했는데, 스프레이 타입을 써 보니 편리성 면에서나 향을 느끼기에는 최고, 땀을 억제하고 냄새를 덜어주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연이 느껴지는 촉촉한 한 뿜 한 뿜 향이 마음에 쏙 든다. 50ml 4만 1천원.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이재진*

**라이너리치 스노우볼 클렌저** 방부제를 넣지 않고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든 안전한 클렌저. 여배우 이영애가 즐겨 쓰는 제품으로 비누 백에 비누 향의 클렌저를 넣고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마사지하면서 메이크업을 지워낸다. 동백 오일 파우더를 용해시킨 클렌저가 달겨 있는 도자기는 클렌저의 보습과 산성도를 유지한다. 85g+리치 세라믹 4만8천5백원. 문의 1899-6838. *by 에디터 배민진*

**달랑 엘리자베트 스킨 톤 브로ایت닝 오일스카치워셔** SPF 20 화이트닝 기능이 뛰어난 것도 건조하지 않은 크림. 허약부족을 함유해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 여러 번 덧발라도 알리지 않고 거품이 없는 텍스처가 어떤 연령대나 잘 맞는다. 50ml 10만 원대. 문의 02-3440-2906. *by 에디터 배민진*







# Sweet time in Gent



젠트는 벨기에 중앙에 위치한 교육과 전통의 도시다. 유럽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이곳은 덕분에 산업과 예술이 발달해 오래전부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예술가와 학자, 사업가가 머물다 가는 곳이다 보니 도시 곳곳은 매력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현대적인 것과 아름답고 실용적인 사상이 조화를 이루어 골목골목 이어진 풍경은 보물을 구경하는 기분마저 들게 한다. 햇살 가득한 수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 나는 돌길, 그리고 그 고풍스러움 안에 가득한 새로움, 골목 사이에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 젠트의 노블 하우스 호텔 - 호텔 베르하에겐

벨기에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마크 베르그베(Marc Vergouwe)와 얀 로젤(Jan Rossel)이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호텔 베르하에겐은 젠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로 손꼽히는 곳이다. 현대적인 기구와 전 세계의 골동품을 사 모아 공간을 장식하고, 그 안에서 특별한 디자인 스토리를 펼쳐내는 이들은 살롱 네오라는 인테리어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은 오래된 18세기 저택을 구입해 디자인을 시작했다. 건물 고유의 매력적인 요소와 새로운 시도를 결합하고,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이국적인 물건을 한곳에 모아 호텔을 열었다. 호텔 곳곳은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여행지에서 사 모은 귀한 골동품과 고가구, 접시, 예술 작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호텔의 로비이자 리셉션 데스크가 위치한 1층은 디자이너들의 사무실이기도 하다. 이곳에 묵는 투숙객들은 디자이너의 멋진 저택에서 머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또 정원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이용해 귀족적인 디자인으로 꾸며놓았다. 벨기에에서 정원은 최상의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은 투숙객들에게 격조 있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곳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식사와 차 한잔, 혹은 와인을 마시고 싶다면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잠시 사라지는 듯하다.

**Hotel Verhaegen** Oude Houtlei 110 9000 Gent **Tel :** 32(0)9 265 07 60  
**Info :** @hotelverhaegen.com www.neoselonneo.be

## 해학으로 가득한 즐거운 식당 - 드 비트린

벨기에 최고의 레스토랑이라 일컬어지는 인 드 울프(In de Wulf)는 숲 속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이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을 2개나 받은 코브 데스라몰츠(Kobe Desramauts)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은 산을 넘어 꼬불꼬불한 오솔길과 숲을 지나 이곳에 도착한다. 그래서 셰프는 사람들이 쉽게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젠트 시내에 작은 레스토랑 드 비트린을 오픈했다. 그는 매일 아침 숲에서 얻은 버섯과 새싹 등 유기농 재료만 이용해 요리한다. 신선한 최상의 재료들은 매일 아침 젠트의 드 비트린으로 배달된다. 드 비트린은 '쇼윈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레스토랑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정육점이었 다. 정육점의 캐주얼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벽의 타일과 고기를 전시하던 쇼윈도를 이용했다고 한다. 정육점 타일을 그대로 살렸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편안한 작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은 환락가 주변에 위치해 있기도 한데, 환락가라고는 하지만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환락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낸다. 코믹하거나 색시한 복장을 한 여자들이 화려한 조명과 함께 쇼윈도를 장식하고 있



다. 고기를 전시하던 정육점과 예쁜 여자들을 전시하는 쇼윈도. 요리의 맛과 유머 감각이 엮여있다.

**De Vitrine** Brabantdam 134 9000 Gent  
**Tel :** 32(0)9 336 28 08 **Info :** www.de-vitrine.be

## 중세의 낭만을 찾아서 - 르 바칸티

젠트의 17세기 건축물 중 대부분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목조건물은 차츰 사라지고 벽돌과 시멘트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 건축가가 1714년 젠트의 옛 지도와 설계도를 들고 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젠트의 거리에 서 있던 아름다운 17세기의 건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 내부는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르 바칸티의 주인장은 이탈리아의 작은 유기농 와인이너만 찾아다니며 고급 와인들을 모았다. 대량생산 방식이 아닌 고급 퀄리티의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르 바칸티의 와인 셀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담한 1층과 2층은 젠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목조 인테리어로 이루어 있으나 와인 셀러와 벽난로가 있는 지하 1층은 중세의 케이브를 그대로 재현한 근사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저녁 식사 전 기분 좋은 와인 한잔을 즐기려 한다면 르 바칸티의 지하 동굴을 추천한다.

**Le Baccanti** Waaistraat 14 9000 Gent **Tel :** 32(0)9 224 20 55 **Info :** www.lebaccanti.be

## 빈티지 칵테일의 모든 것 - 지거스

1920년대는 미국에 내린 금주령 때문에 또 다른 알코올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당시 술을 마시려면 이발소 같은, 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숲 지하에 위치한 비밀 통로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 통로를 거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백 가지의 술병과 화려한 잔, 그리고 잘 차려입은 바텐더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 은밀하고도 재미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이제 별로 없다. 모든 바와 술집은 그야말로 가장 화려하고도 눈에 띄는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다. 젠트에 위치한 지거스(바텐딩 도구로, 칵테일을 제조할 때 술의 양을 가늠하기 위한 도구)는 192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멋진 칵테일 바다. 바에 있는 두꺼운 다이아리에는 매일 다른 칵테일 메뉴를 손 글씨로 적어놓고, 바텐더들은 이 메뉴에 따라 직접 만든 각종 술과 과일 시럽을 가지고 정성 들여 칵테일을 제조한다. 색색의 아름다운 술병과 능숙하지만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지 않는, 나비타이를 한 지거스의 바텐더들이 칵테일 만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 소설 속 위대한 개츠비와 만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글 지은경**

**Jiggers** Oudburg 16 9000 Gent **Tel :** 32(0)9 335 70 25 **Info :** www.jiggers.be



1 18세기 저택의 분위기를 간직한 베르하에겐 호텔의 웅장한 내부. 2, 3 옛 푸줏간에서 사용하던 타일 부엌을 그대로 간직한 드 비트린. 4 드 비트린에서 만나는 모든 음식은 드 비트린이 경영하는 농장, 그리고 산과 숲에서 채취한 재료들만 만들어진다. 5 베르하에겐 호텔의 객실들은 고급스러운 벨기에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도록 다양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6 심플하고 실용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디자인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베르하에겐 호텔의 욕실. 7 저택의 지하 포도주 창고를 개조해 만든 르 바칸티의 와인 저장. 8 르 바칸티에서 만나는 벨기에의 향연. 9 플랑드르 지방의 특색이 살아있는 르 바칸티의 외부 전경. 10 르 바칸티는 작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면 오래 전에 예약해야 한다. 11 금주령이 내려졌던 1920년대 미국 술집들의 요란한 실내 내부 공간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풍겼다. 자카스의 쇼윈도 역시 영리한 여주의 모습인 여주는 귀리를 빻는다. 12 지하에 숨겨진 올드패션 스타일의 바를 그대로 재현한 지거스의 지하 이터.





# SHOWROOM

JEWEL



러저 활동 시 착용하기 적합한 방수 시계를 선보이는 스와치는 올해 투링 스트랩과 네온 컬러를 강조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200m 방수 기능이 있으며, 잠수 경과 시간과 남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회전 베젤 기능을 탑재했다. 슈퍼리미노바 인텍스를 접목해 어두운 곳에서도 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46-9401

**론진 AK 플라자 수원점** **그랜드 부티크 오픈** 론진이 AK 플라자 수원점 1층에 20평 규모의 단독 부티크를 오픈한다. AK 플라자 수원점 론진 부티크에는 국내 최초로 입고된 2014 바젤 신상품인 엘레강트 컬렉션은 구비,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 당일에는 론진이 준비한 심페니 오프닝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오픈 당일부터 한 달간, 골드 시계 구매 고객에게 고급 엘리베이터 스트랩을 증정하는 AK 수원점 론진 매장만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특별할 기회 놓치지 마시길. 문의 02-3149-9532

**루시에 리모 링** 루시에가 리모 링을 소개한다. 허프의 현에서 영감을 받은 리모 링은 낮낮을 달리해 리듬감 있게 배열한 밴드가 마치 여러 개의 링을 레이어드한 듯한 느낌을 준다. 세 겹 반지에는 총 0.59카트의 다이아몬드를, 다섯 겹 반지에는 총 1.08카트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밀그레이니 기법을 적용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로즈 골드와 플래티넘 골드 소재 중 선택 가능하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12-6914

**골든듀 골든보너스 행사** 골든듀에서 론칭 25주년을 맞아 골든보너스 50%를 진행한다.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단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백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다. 골든듀 청담본점과 진로 백화점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15-5796



**몽블랑 SIHH Comes to You** 몽블랑이 지난 5월 롯데백화점 에버뉴엘과 잠실점 몽블랑 부티크에서 'SIHH Comes to You'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SIHH(국제고급시계박람회)에서 선보인 2014년 신제품들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 기간 중 매장을 방문한 많은 고객들은 매장에 전시된 스케이스 인의 신제품과 역사가 기록된 자료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문의 02-3440-5734

**핀도리 에센스 컬렉션 론칭** 핀도리는 청담동 알키미스트에서 새로운 에센스 컬렉션을 소개하는 론칭 이벤트를 개최했다. 핀도리의 에센스 컬렉션은 슬림한 스타일 실버 브레이슬릿에 열정, 행복, 사랑, 용기 등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총 24개의 컬러로 구성되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따라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신축성이 좋은 실리콘을 한 내부에 넣어 브레이슬릿에 부드럽게 기울 수 있고, 원하는 자리에 쉽게 침을 고정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문의 02-551-7038

**티쏘 T-레이스 MotoGP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티쏘에서 T-레이스 MotoGP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블랙 러버 밴드 위에 새긴 붉은색 스킨스티프를 통해 모터스포츠를 향한 티쏘의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스킨스티프를 방지하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장착했으며, 무브먼트 와인더를 포함한 MotoGP 박스에 3천 3백33번만 한정 출시한다. 문의 02-543-7685

**그라프 브라이덜 컬렉션**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에서 '브라이덜 컬렉션'을 선보인다. 클래식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을 비롯해 로맨틱한 하트 세이프 컷, 우아한 바게트 컷, 심플한 프린세스 컷 등 다양한 컷으로 구성했다. 그라프 브라이덜 컬렉션은 최상급 다이아몬드와 상채한 프랑을 결합한 세공 기술을 자랑한다. 문의 02-2256-6810



**포칼 와이어리스 시스템** 프랑스 오디오 브랜드 포칼(FOCAL)이 '이치아 와이어리스 시스템'을 출시한다. 미니멀한 직사각형 디자인과 정교한 라인, 은은한 화이트 컬러, 모노톤 컬러가 조화를 이루어 심제된 멋을 드러낸다. TV, CD 플레이어, PC를 연결하면 무선으로 간편하게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블루투스 기능이 적용된 태블릿, 스마트폰도 연결 가능하다. 문의 02-549-9031



**비디프렌드 비강스 테라피** 비디프렌드가 비강스 전후 건강관리를 위한 안마의자를 제공한다. 전문 마사지사 테라피스트의 노하우를 그대로 살려 팬텀, 프래지던트 등 대부분의 모델에 스트레칭 모드, 활력 안마, 휴식 안마, 회복 안마, 상하체 집중 안마, 수면 안마 등 6종의 자동 전신안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람의 손길과 유사한 주무름, 두드림, 손날 두드림, 복한 안마, 지압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프래임을 자동 조절하며, 기호에 따라 음원을 감상하거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편의 기능도 구비했다. 문의 1600-2225



**페르노리가 코리아** 임페리얼 탄생 2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페르노리가 코리아가 '임페리얼 탄생 2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을 공개했다. 임페리얼 보틀의 상징적인 다이아몬드 엠블 엠블을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닌 청자와 백자를 모티브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위스키 특유의 최소한 가치와 고급스러움을 절제된 미학으로 표현했다. 스코틀랜드에서 20년 이상 숙성된 원액만을 엄선하고, 최상의 블렌딩을 거쳐 만들어 최고급 위스키로서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문의 02-3466-5700

LIFESTYLE



**토즈 첫 번째 소셜 플랫폼, 'Dots of Life' 론칭**

토즈에서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슈즈 고미노(Gommino)를 활용한 새로운 소셜 플랫폼, 'Dots of Life'를 론칭했다. 전 세계 셀러브리티와 사회적 명사, 파워 블로거 등이 고미노를 멋스럽게 착용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공유하면 사용자들은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자신의 고미노 스타일링을 웹사이트 혹은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 #TODSGOMMINO를 넣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다. 이미지는 토즈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등 토즈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다. http://gommino.tods.com



## FASHION

**바버리** **미디엄 엠보싱 체크 가죽 토트백** 바버리가 미디엄 엠보싱 체크 가죽 토트백을 선보인다. 송아지 가죽에 엠보싱 처리한 체크 패턴과 상단의 지퍼 여밈, 오버사이즈 금속 지퍼 손잡이가 포인트이며 내부에는 수납 칸이 나누어져 실용적이다. 탈착 가능한 가죽 어깨끈과 핸드 패턴팅한 모서리, 스웨이드 트리밍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문의 02-3485-6583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스카드리토** **클러치**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에서 '스카드리토' 클러치 백을 선보인다. 전면에는 악어가죽을, 뒷면에는 소가죽을 접목해 다양한 소재의 질감을 보여주며, 빅 사이즈 포켓과 지퍼 오픈 형태로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딥 블루, 야구아 블루, 포레스트 그린, 다크 그레이 등 총 4가지 컬러 팔레트로 선보인다. 문의 070-7130-9200

**까르띠에** **진느 투상 파인 레더** **컬렉션** 까르띠에가 파인 레더 컬렉션을 새롭게 론칭했다. 특히 까르띠에의 뮤즈인 진느 투상을 오묘주한 '진느 투상 컬렉션'은 부드러운 베이지와 브라운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핸들과 밑단에 크로커다일 가죽을 접목했다. 수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체인이나 후크를 세팅한 장금장치를 통해 전통적인 주얼리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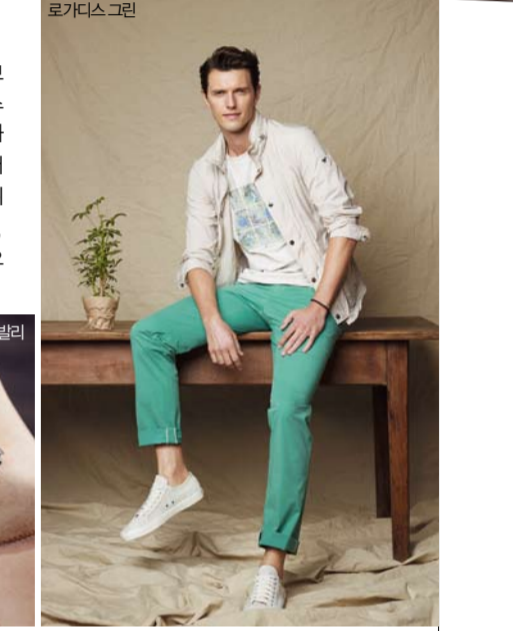
**로가디스 그린** **에코 티셔츠** 로가디스 그린에서 에코 티셔츠를 출시했다. 대나무와 코코넛을 비롯해



커피, 허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 원료의 질감과 특수 가공 처리를 통해 청량감이 탁월하며, 고온에서 활성화된 숯 성분이 체내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중화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쾌적하게 보호한다. 문의 02-2076-7623

**룩스타카 코리아** **2014 F/W 프레젠테이션** 룩스타카 코리아는 청담동 살롱 드 에티에서 2014 F/W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했다. 룩스타카의 대표적인 하우스 브랜드 레이벤과 올리버 피플스, 페르소를 비롯해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폴 스미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아이웨어 뉴 컬렉션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독특한 소재와 장식, 플래시 렌즈를 접목해 동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의 02-501-4436

**발리 특별 주문 제작 슈즈** 발리에서 마이 스크립(My Scribe) 특별 주문 제작 서비스를 선보인다. 옥스포드, 부티, 골프 슈즈, 몽크 스트랩 등 9가지 스타일과 송아지 가죽, 악어가죽, 타조가죽 등 각 8~10cm의 컬러의 조합을 통해 약 3백30가지의 상품 종류와 니를 위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총 12주 정도 소요되며, 국내에서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빌리 매장을 시작으로 진행한다. 문의 02-3467-8935



BEAUTY



**디올 윈 에센셜** 디올에서 새로운 '윈 에센셜'을 출시한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레드 허비스커스 플라워 에센스를 새로운 성분으로 추가해 피부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고 광채를 되찾는 에이지 부스틴 에센스다.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면 다음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문의 02-3438-9631

**나스 듀얼 인텐시티 아이섀도우** 나스에서 듀얼 인텐시티 아이섀도우를 출시한다. 물을 조금 섞어 사용하면 섬세한 라인이 완성되며, 매트한 느낌을 원하면 건조한 눈두덩에 그대로 사용해 자연스러운 눈매를 표현할 수 있다. 인도메다, 디오네, 티스 데모나 등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과 세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문의 02-6905-3747

**프라다 캔디 플로럴** 프라다가 달콤한 캔디와 사랑스러운 꽃 향을 담은 향수, 캔디 플로럴을 출시했다. 이탈리아에서만 생산되는 스피클링 시트론으로 싱겁게 사후해 풍부한 코스모스 향이 이어지며, 캔디 고유의 달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캐주얼 향취로 마무리된다. 프라다의 수석 디자이너 미우치아 프라다가 조향에 직접 참여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문의 080-363-5454

**겐조 로베겐조 퍼퓸드 데오도란트** 겐조가 여름을 맞아 '로베겐조 퍼퓸드 데오도란트'를 출시한다. 로베겐조는 '물이라는 뜻으로 부드러운 물결 모양의 곡선을 표현한 향수다. 생해진 민트와 아로마 효과를 내는 로티스 플라워의 조합이 즉각적인 편안함을 선사하며, 스프레이 타입으로 선호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문의 080-344-9500

**클라리노스 토탈 V 에센스** 클라리노스가 더욱 강력해진 4세대 '토탈 V 에센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엄선된

식물 추출물이 더욱 강력해진 '토탈 V 에센스'는 과다나 추출물이 얼굴 모양을 더욱 뚜렷하게 정돈해 주는 V 파워, 제모트 진저 추출물이 피부에 과다한 수분을 조절하는 '수분 파워, 감 추출물이 늘어선 탄력을 끌어 올리는 '리프팅 파워가 강조되어 또렷한 V 라인인을 위한 토털 케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080-542-9052

**클라리노스 론칭 1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클라리노스가 한국 론칭 1주년을 기념해 4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얼굴 전용 제품 Mia2와 얼굴과 보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Plus로 선보이며, 한국 여성 피부에 맞는 센티널 브리시기가 기본 브리시로 장착되어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다.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와 WOW 모먼트 홈페이지 오픈, 모든 데모나 구매 시 모공 브리시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3497-9532

**볼가리 향수** **올니아** **인디안 가넷 & 뉴티 오일 포 바디** 볼가리 향수에서 데뷔로 자라기 쉬운 몸과 마음을 리프레싱시키는 '올니아 인디안 가넷' 2종을 출시한다. 볼가리 '올니아 인디안 가넷' 2종은 인도에서 온 귀중한 보석, 만년 가넷에서 영감을 받아 매혹적인 여성미를 표현한 여성 향수 '올니아 인디안 가넷' 오데 토일렛과 신성한 사용감과 보습력으로 보디를 매끄럽게 관리해주는 '뉴티 오일 포 바디'로 구성했다. 문의 080-990-8989



**사설 문화 사설전 (장소의 정신)**

사설이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장소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문화 사설전을 열 예정이다. 2013년 광주우 오메라 하우스와 파리 팔레 드 도쿄에서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큐레이터 장-루이 프랑망이 이번 문화 사설전 기획을 맡았다. 총 10개에 이르는 전시 공간은 각각 마드루 아젤 사설의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대변하며, 각각의 장소가 사설의 패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하고자 했다. 사설의 패션, 주얼리, 시계, 향수 등과 함께 5백 점 이상의 다양한 사진, 책, 오브제 등 작품을 통해 마드루아젤 사설의 삶을 재조명하게 된다. www.culture-chanel.com